

제2256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윤완수 이사장 “한국 핀테크 성공하려면” 12



박원순 “기후대응, 튼베리처럼 행동할 때”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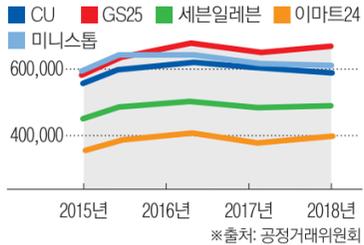
코스피(4일) **2130.24** (+30.04P)  
코스닥 **668.45** (+6.11P)  
환율(달러당 원화) **1159.20** (-6.4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550%** (+0.083%P)

## 편의점 가맹점 매출 1위 ‘GS25’... ‘도시락’ 먹혔다

〈점포수 2위〉

작년 평균 6.7억...3년째 1위 가맹점 수 1위 CU는 3위 그쳐 매출 상승률 ‘이마트24’ 최고

편의점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추이 (단위: 천 원)



예비 창업자들이 편의점 브랜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 하나인 가맹점 평균 매출이 가장 높은 편의점을 어디일까. 가맹점이 많을수록 매입 단가를 낮춰 점주 수익이 높을 것이라는 편견이 편의점에서는 여지없이 깨진다. 매장 수 기준 업계 2위인 GS25가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점포 수 1위 브랜드 CU(씨유)는 점포당 매출이 2년 연속 내리막을 걸으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의 가맹점 평균 매출은 6억7206만원으로 편의점 상위 5개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6억7544만원으로 집계된 미니스톱이다. 매장 수 2위 기업 점주가 가장 매출이 높고 5위 기업의 매출이 두 배째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CU(5억9312만원)와 세븐일레븐(4억8759만원)이 각각 3, 4위에 올랐다. 이마트24는 3억9631만

원으로 5위로 조사됐다. 편의점의 경우 점포 수와 점포당 매출이 비례하지 않는 대표적인 창업 아이템이다. 편의점 가맹점 수 순위는 지난해 CU가 1만3040개로 1위, GS25는 1만2973개로 2위였다. 이어 세븐일레븐(9133개), 이마트24(3572개), 미니스톱(2494개) 순이다. 2015년만 해도 평균 매출이 가장 높은 곳은 치킨 패스트푸드 메뉴를 갖춘 미니스톱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편의점 도시락 열풍이 불면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다. 2014년 미니스톱은 5억6129만원으로 5억4124만원인 GS25를 2000만여 원 차이로 눌렀지만, 2015년에는 6억4027만원으로 GS25를 250만여 원 차이로 힘겹게 따돌렸다. ▶13면에 계속

남주현 기자 jooh@



文대통령·아베 “대화로 해결하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환담을 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 간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5면 사진제공 청와대

## 6억 주택연금 55세 가입하면 매달 86만원 받는다

가입연령 60세 → 55세 하향 추진 퇴직후 ‘소득 공백’ 완화 대책 마련

연령별 주택연금 집값 수령액 \*정액형 기준

연령	주택가격			
	6억 원	7억 원	8억 원	9억 원
55세	86만8000원	101만3000원	115만8000원	130만3000원
60세	119만1000원	139만 원	158만8000원	178만7000원
65세	145만 원	169만2000원	193만3000원	217만5000원
70세	179만1000원	209만 원	238만8000원	268만7000원

※출처: 주택금융공사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생기는 ‘소득 크레바스(공백)’가 일부 매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관련 업계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회,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현재 사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가입연령은 2009년 65세 이상에서 지금의 60세 이상으로 낮춰진 뒤 10년째 유지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장년층의 조기 퇴직

에 따른 수입 공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5월 기준 경제활동 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남성이 51.4세, 여성은 47.6세였다. 가입연령이 낮아지면 월 수령액은 줄어든다. 60세 가입자가 6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 현재는 매달 119만

원을 받지만, 55세에 가입하면 86만8000원을 수령한다. 아울러 정부는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 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RCEP’ 연내 타결 무산

‘아세안+3 정상회의’서 인도 제외한 15개국 합의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최종 타결과 협정문 서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인도가 관세 인하 문제에 난색을 표하면서 나머지 15개국의 협정문 타결 선언만 공동성명에 담기로 했다. 4일 문재인 대통령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차 RCEP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시장 개방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추진키로 했다. 인도는 대규모 무역 적자를 이유로 관세 인하와 철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인도의 경우 주요 이슈에 대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일환 기자 whan@

## 산업은행이 미리미리 준비하니까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4차산업혁명의 시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위해 KDB산업은행이 다양한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 KDB 넥스트라운드 벤처투자 플랫폼으로 제2의 벤처신화를 써 갑니다
- KDB 글로벌챌린저스 200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합니다
- KDB 혁신성장지원 혁신성장지원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갑니다



내일의  
산업은  
망망  
라임

# “포장김치가 더 싸네”... 엄마들의 ‘김장 보이콧’

# 서울 봉천동에 거주하는 50대 주부 김 모 씨는 결혼 25년 만에 처음으로 김포(김장 포기)족을 선언했다. 배추, 무, 마늘 등 김장재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예년보다 김장비용 부담이 커진 탓이다. 그는 시중에 판매되는 포장김치를 구매하는 것으로 올 김장을 대신할 생각이다.

김장 대신 포장김치를 사는 주부가 늘어 날 전망이다. 배추 수확철을 앞두고 발생한 태풍으로 올가을 배추값이 폭등하면서 김장을 하는 것보다 포장김치를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포기당 김장비용은 1만5000원 선으로 포장김치 대비 2000~3000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4인 가구 김장비용(20포기 기준)을 30만 원 내외로 전망했다. 이는 배추와 무, 고춧가루, 간마늘 등 김장에 들어가는 재료를 포함한 것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인상된 수준이다. 포

태풍 피해 영향 배추·무 값 폭등  
김장비용 포기당 1만5000원  
포장김치보다 2000~3000원 ↑  
노동 스트레스도 소비 변화 한몫

기당 환산 가격은 1만5000원 선이다. 반면 시중에 판매되는 포장김치 가격은 이보다 저렴한 1포기당 1만2000~1만3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대상 증가집의 ‘증가집 포기김치 7kg’ 가격은 4만1800원이다. 통상 포장김치 10kg에는 배추 5포기가 들어간다. 이를 감안하면 포장김치 40kg(배추 20포기)의 가격은 23만8800원에 달한다. 1포기당 가격은 1만2000원 수준이다. CJ제일제당의 ‘비비고 포기김치’도 1포기당 가격은 1만3000원 선이다.

정부는 김장비용강세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선부른 관측을 피했다. 농림부는 “생육 초기 태풍 등의 피해를 받은 김장용



시중 판매 중인 포장김치 가격  
(기준: 김치 20포기)

업체명: 대상  
제품명: 증가집 포기김치  
가격: 23만8800원  
포기당 가격: 약 1만2000원 (추산치)

업체명: CJ제일제당  
제품명: 비비고 포기김치  
가격: 26만4200원  
포기당 가격: 약 1만3000원 (추산치)  
※출처: 각사

배추와 무의 가격 강세로 김장비용이 올랐 다”며 “향후 작황의 회복 정도, 기상 여건 등 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와 달리 통상 11월 김장에 나서는 주부들은 김장비용이 하락하기를 기다리기보다 포장김치로 월동준비를 일찌감치 마치려는 분위기다. 특히 3040과 달리 매년 김장을 고집해왔던

5060 주부들까지 포장김치 구매 의사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 증가집이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주부 3000여 명을 ‘올해 김장 계획’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장을 포기하겠다는 의견이 54%였다. 또 50대 이상 김포족 중 ‘포장김치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7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61%)에 비해

15%p 증가한 수치다. ‘김장 스트레스’와 더불어 크게 치솟은 김장물가가 원인이다.

대상 증가집 관계자는 “과거 포장김치 구매를 꺼리던 50대 이상 주부들의 포장김치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으며, 고된 노동보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식 전환을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식품업계에서는 합리적인 소비문화가 확산된 것도 포장김치 구매 의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포장김치 가격은 재료비와 인건비, 포장 및 배송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며 “김장의 경우 재료비 외에 김장에 투입되는 노동과 시간에 대한 비용이 제외된 만큼 사실상 포기당 2000~3000원보다 주부들이 체감하는 차이는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맛별이 늘어나면서 매년 포장김치 수요가 늘어나는데 올해는 배추가격 폭등으로 이 같은 현상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경무 기자 noglasses@

## 소주병서 ‘아이린·수지’ 사진 사라지나

술병 용기에 연예인 사진 부착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  
복지부, 주류광고 개선 검토

‘처음처럼에서 수지가 사라진다.’  
정부가 소주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붙인 주류광고 금지를 추진한다.

홍정익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은 4일 “국정감사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며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주류광고 제한은 지난

달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남 의원은 “담뱃갑에는 암 환자 사진이 붙어 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 있다”며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지만,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사례는 한국밖에 없다고 한다”며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소주업계는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이 레드벨벳의 아이린을,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이 수지를 모델로 내세우고 소주병과 페트 등 제품 용기에 이들의 사진을 담았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류광고 기준 변경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복지부의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데다, 주류광고 기준을 변경하는 데 일정한 절차가 필요해서다.

홍 과장은 “연예인 사진 부착을 금지하려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상 광고 기준을 바꿔야 한다”며 “새 규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부터 수렴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류회사 소주병 뒷면 모습. 참이슬 모델 ‘아이린(빨간색 원)’, 처음처럼 모델 ‘수지(주황색 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앞으로 일정도 나오지 않았다”며 “앞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한 것이지,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음주 폐해 예방관리사업 예

산은 약 13억 원이었다. 이는 1388억 원이 편성된 국가금연사업 예산의 100분의 1 수준이다. 또 흡연과 관련한 건강증진과라는 전담부서가 있는데 반해, 음주는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알코올 중독증에 한해 관리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www.bixpo.kr
KEPCO

**한국전력이 주관하는 BIXPO에서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한 발 앞서 만나보세요**

**BIXPO 2019**  
Energy Transition & Digital Transformation

기간: 2019년 11월 6일(수) ~ 11월 8일(금)  
장소: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  
주제: Digital Platform (Hyper-Connectivity & Mega Shift)

**BIXPO 2019 주요 프로그램**

- 신기술전시회  
310사
- 국제컨퍼런스  
48세션
- 국제발명대전  
160점

**BIXPO 2018 주요 실적**  
61개국 81,236명 관람객 참가 / 45개국 80명의 CEO/CTO 참가  
282개 기업 / 760개 전시부스 / 4,000여명 전력전문가 참가

T. +82 61.345.8471~8476 E. biz\_bixpo@kepco.co.kr  
W. www.bixpo.kr / App.

**BIXPO: Bitgaram International Expo of Electric Power Technology**

# 능력·운 중요하지만... ‘별’ 딴 진짜 비결은 ‘인맥’

- 1 대기업 ‘별’이 지기 시작했다
- 2 나는 이렇게 대기업 ‘별’이 되었다
- 3 ‘진상’과 ‘방상’ 임원 전성시대
- 4 권오현이 말하는 초격차 임원 DNA

“인사(job position)를 위해서는 인사(greeting)를 잘해야 한다.”

대기업의 ‘별’들은 임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한결같이 ‘인사(人事)’를 꼽았다. 일과 회사에 대한 열정만큼 ‘사람’에 대한 열정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임원들은 회사 안팎에서 만난 인연을 소중히 여겼고, 관계를 지속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스콧 갤러웨이 뉴욕대 스티븐 경영대학원 교수가 대기업 근무의 기술로 꼽은 원숙함과 절제력, 겸손함, 제도를 향한 존경심과 맞닿아 있다.

국내 40위권 대기업에 몸담고 있는 임원 8년 차 A 상무는 30년 가까이 회사생활을 해오고 있다. 그는 임원에 오를 수 있던 비결로 ‘플러스알파’를 꼽았다. 일은 기본적으로 잘해야 하고, 아울러 원만한 인간관계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은 이제 옛날 이야기라고 단언했다. A 상무는 “승진하는 사람들은 현재 직급의 업무뿐만 아니라 한 단계 위 직급의 업무도 충분히 해내는 경우가 많았다. 개개인이 자리(임원)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업계 출신의 B 전 상무도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고 했다. 그는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돈은 부수적인 것이다.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인생에서 여러 기회

가 오더라”라며 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물론 밑바탕에는 뛰어난 업무 능력과 책임감이 기본으로 깔려야 한다. B 전 상무는 “직장생활 동안 지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남들 오기 전에 운동하고신문보고 그리고 업무에 들어

가면 항상 여유가 있어서 좋았다. 성실함과 책임감을 항상

떠올리며 근태 관리, 주어진 업무를 완

가 오더라”라며 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물론 밑바탕에는 뛰어난 업무 능력과 책임감이 기본으로 깔려야 한다. B 전 상무는 “직장생활 동안 지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남들 오기 전에 운동하고신문보고 그리고 업무에 들어

가면 항상 여유가 있어서 좋았다. 성실함과 책임감을 항상

떠올리며 근태 관리, 주어진 업무를 완

가 오더라”라며 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좋은 사람 만나야 좋은 기회 온다” 끊임 없는 자기개발·실적은 물론 안팎의 ‘인간관계’ 으뜸으로 꼽아

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삼성 계열사의 C 상무는 지난해 부장에서 상무로 승진하며 임원 세계에 첫발을 들였다. 임원이 되는 과정은 흡사 수험생 시절과도 비슷했다.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학습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틈틈이 선행학습도 병행해야 했다. C 상무는 “업무와 사람을 대할 때 최선을 다했다. 주어진 업무는 철저히 이행하고 선제적으로 업무 혁신도 했다”며 “임원은 회사 경영진의 한 축이므로 업무능력과 함께 책임감과 애사심도 커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3년 차 임원인 D 상무는 임원이 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지만, 사내 임원 양성 프로그램인 외국어 학습 지원, 리더십 과정 등을 성실히 수행했다. 매일 진행되는 우수 석학들의 강연도 챙겨서 들었다. 회사 생활을 병행하며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동료 임원은 MBA(경영대학원 석사) 과정도 밟았다.

국내 20대 그룹의 임원인 E 상무는 2011년부터 임원 생활을 시작, 올해로 만

8년이 지났다. 그는 임원이 된 비결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꼽았다.

이어 “임원이 된 후에는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 쏟았다. 임원이 되면 업무 범위가 훨씬 넓어져 물리적으로 시간을 더 내야 한다”며 주인의식과 책임감 없이 임원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반 잘한다고 임원이 되는 것도, 사내 정치를 잘한다고 임원이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 직원 가운데 임원에 오르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1명. 날고 기는 사람들이 ‘대기업의 꽃’ 임원이 되지만, 소위 ‘운발’도 따라야 한다는 점·현직 임원들의 고백이다.

중공업계 출신의 F 전 실장은 “임원이 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이 좋아야 한다. 우선 좋은 회사에 입사해야 하고 경제 및 협합이 상승세에 있는 것은 물론 좋은 선·후배, 신뢰할 수 있는 동료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아보면 이러한 상황과 운도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국내 주요기업 미등기 임원 보수 상위 10곳 (단위: 명, 백만원) ※ 미등기 임원, 반기보고서 기준

종목명	인원수	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LG	15	8,410	561
SK하이닉스	178	81,616	459
SK	69	26,330	382
SK이노베이션	80	27,920	349
LG전자	325	79,861	319
삼성전자	872	265,732	305
LG화학	140	42,746	305
포스코	66	24,500	232
LG이노텍	35	7,947	227
LS	7	1,468	210

※ 출처: 각사 반기보고서

## 국내 대기업 임원 혜택

- 이동수단** 그랜저급 준대형 세단 운전기사 배정(선별적)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 사내 복지** 월급인상 건강검진(100만원대) 직무수(선별적) 개인비서(선별적)
  - 사외 복지** 골프장 회원권 호텔 헬스장 이용권 공항 라운지 이용권
- 그래픽 손미경기자 sssmk@

## 짧지만 굵은 상위 1%의 삶

두둑한 혜택 뒤엔 살벌한 실적 압박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쓴웃음

어제까지만 해도 만원 지하철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출근하고, 거래처와의 미팅을 위해 허공에 인사까지 해가며 약속을 잡던 고단한 일상이 하루 만에 바뀌었다.

갑자기 비서가 알아서 일정을 관리해주고, 집을 나서면 자신만의 준대형 세단이 주차장에 있다. 비즈니스급으로 업그레이드 된 비행기 좌석 덕분에 해외 출장길이 한결 편안해졌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도 꼼꼼하게 챙겨준다. 무엇보다 지갑이 두둑해졌다.

누구나 꿈꾸는 대기업 임원들의 삶이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임원의 삶은 정말 어떨까. 이투데이가 국내 굴지의 주요 대기업 임원들 30여 명에게 물어봤다.

임원들에 따르면 임원 혜택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무심코 월급 통장을 봤다간 순간 눈을 의심하게 된다. 인센티브 등을 따져보면 월급 기준으로 ‘0’이 하나 더 붙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평소에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골프장 회원권은 물론 호텔 헬스장 이용권, 100만 원대를 초과하는 건강검진 비용 등 복지 혜택에서 군대 장군 진급에 못지않은 변화가 생긴다.

이투데이가 전기·전자, 자동차, 중공업, 항공·운송, 석유·정유 등 업종별 41개 기업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분석·종합한 결과 국내 대표 대기업들의 임원(미등기 기준)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은 1억7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급여액이 가장 높은 곳은 LG였다. 임원

이 1년 동안 챙겨가는 돈이 5억6100만 원에 달했다. SK하이닉스(4억5900만 원)가 두 번째로 높았으며 SK(3억8200만 원), SK이노베이션(3억4900만 원), LG전자(3억1900만 원), 삼성전자(3억500만 원)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기업 임원 급여가 상위권을 대부분 휩쓸었다.

교통 수단으로는 그랜저급의 준대형 세단이 지급된다. 회사별로 다르지만, 간혹 운전기사가 함께 배정되기도 한다. 운전기사는 일상적인 업무와 이동을 위한 든든한 발이 되어준다.

해외 출장 시 이용하는 항공기 좌석은 비즈니스 클래스로, 그리고 출국 전에는 라운지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직급에 따라,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 ‘나만의 집무실’도 생기기도 한다.

물론 기회비용은 존재한다. 받는 만큼 책임감은 두 배로 늘어나며, 달콤함은 영원할 수 없다.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이를 진두지휘한 해당 임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니라,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임원을 다는 순간 ‘계약직’으로 전환돼 퇴직금 정산도 해야 한다.

C그룹의 신입 상무는 “임원을 맡아보니 전용차량 배정, 늘어난 업무추진비 등 어깨에 힘들어갈 정도로 좋다”면서도 “매년 계약 연장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부장 시절이 그립기도 하다”고 털어놨다.

하유미 기자 jscs508@·김성민 기자 kimstar1215@

WINNERS CLUB  
이투데이 우수기업

# 원칙은 곧게 믿음은 곧게

금융이 지켜야 할 원칙  
고객과 지켜야 할 약속  
한국투자증권이 지켜드립니다



한국투자 증권

# 美 로스 상무장관 ‘韓, 자동차 관세 면제’ 시사 제외 댄 美시장 ‘질주’...신중론도

13일 25% 관세 시한... 美 “車 생산국과 좋은 대화 나뉘”  
업계 “모든 게 불확실하지만 설득 완료... 결과 기다릴 것”

우리나라가 13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관세 부과를 이유로 불확실성이 커져 왔던 국내 자동차 업계가 면제 조치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업계는 신중한 모습이다. 그간 미국 행정부의 정책 결정 관련 예측이 불발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월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의 관세 부과 조치도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로스 장관은 “우리는 자동차 생산국인 한국, 일본, 유럽 친구들과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 등은 한국의 관세 부과 면제를 접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한미 FTA 개정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를 통해 미국의 픽업트럭 관세양허시점 연기,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차의 자국 안전기준 적용 인정 대수 확대 등 미국 측의 자동차 분야 핵심적 요구사항을 해소했다.

현대차와 한국가스공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미(對美) 투자 보따리를 안긴 점도 면제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현대차는 올해 9월 미 ‘애틀비’와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은 20억 달러(약 2조39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웃음 짓게 했다.

가스공사 역시 같은 달 미국 뉴욕에서 에너지기업 비피(BP)와 액화천연가스(LNG)를 96억 달러(11조5000억 원) 규모로 추가 수입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체결되는 한-미 LNG 장기매매계약 건이었다.

지난달 25일 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한 점도 자동차 관세 부과에는 긍정적 요인이다.

한국이 WTO 내에서 개도국 지위를 더는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미국이 WTO

의 개혁을 끊임없이 압박하는 가운데 WTO 협상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통상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 대규모 대미 투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미국에서 요구한 통상협안 등을 대부분 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5월과 같이 결정을 연기해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신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무역상대국과의 현안에 대한 압박용 지렛대”라며 “다시 한번 5월의 상황처럼 예외 확률도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신중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 행정부의 정책 결정이 사안별로 예측이 불발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모든 게 불확실하다”면서도 “협화와 자동차단체까지 나서서 마지막 설득작업을 벌인 만큼 결과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변호선 기자 hsbyun@

## KDI “미·중 무역분쟁에 韓 성장률 0.3%P 하락”

“中 실물지표 빠르게 악화  
규제완화 등 체질 개선 필요”

미·중 무역분쟁에 더한 실물지표 부진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중 관세 부과가 모두 실현될 경우, 우리 경제는 주로 중국 경제 둔화에 기인해 성장률 0.34%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중국 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김성태 경제전문실장)’ 보고서에서 “최근 미·중 간 타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협상 결과에 따라 양국의 통상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올해 들어 양국의 교역량이 총수입 증가율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양국 간 관세 부과가 주변국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올해 12월까지 관세가 모두 현실화된다는 가정하에 수입탄력성을 기반으로 양국의 교역량 감소를 계산하고 국제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중 간 관세 부과가 모두 실현될 경우 주

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34%P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중 양국이 동시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미국의 성장률은 0.09%P 하락에 그치는 데 반해 중국의 성장률은 1.06%P 하락해사다. 우리 경제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로 미국(12.0%)의 2배를 넘는다.

대내적으로 중국의 최근 실물지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게 위험요인이다. 기업들의 총자산수익률은 3% 초반까지 하락했으며, 이자보상배율이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은 20%에 달하고 있다. 또 채무불이행 기업은 지난해부터 급증해 올해 1분기에만 40여 개에 달했다. 은행의 전체 부실 규모는 최근 3년간 50% 이상 증가했다. 은행의 순이자수익률은 2% 초반까지 하락했다.

이 같은 중국의 대내외 여건은 중국과 주변국들의 성장률을 상당 기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은 “규제적으로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부실기업 정리 등 경제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가 4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AI 포럼 2019’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삼성 AI 포럼은 지능형 인공지능(AI) 분야 석학들을 초청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응용 및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기술 교류의 장이다. ▶관련기사 10면

삼성 AI 포럼 개막

## 소비 둔화에도 온라인쇼핑은 호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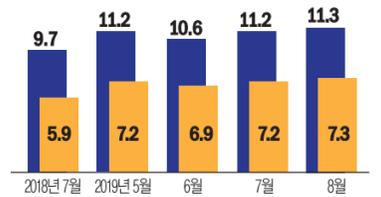
3분기 33.5조... 모바일 21.6조

소비 둔화에도 온라인쇼핑은 호황이다. 3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3분기보다 20% 가까이 증가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33조555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조1431억 원(19.4%) 증가했다. 상품군별로는 음식서비스(82.8%), 화장품(28.0%), 음·식료품 등에서 크게 늘었다. 분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20.5%, 2분기 22.1%, 3분기 17.5%, 4분기 22.8%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17.6%, 2분기 17.9%, 3분기 19.4%로 다소 둔화했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의 가장 큰 배경은 모바일쇼핑 거래액 증가다. 3분기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21조6929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5% 늘고,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비중은 64.6%로 3.1%포인트(P) 확대

온라인·모바일쇼핑 거래액(단위: 조 원)  
■ 온라인쇼핑 ■ 모바일쇼핑 \* 출처: 통계청



됐다. 모바일쇼핑 중에서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음식서비스가 88.3% 늘며 급증세다. 음식서비스는 전체 거래액의 대부분이 모바일쇼핑에서 발생했다.

단 온라인·모바일쇼핑 호황이 소비 호황을 의미하진 않는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5.3%, 2분기 5.0%, 3분기 3.8%, 4분기 3.0%에 달했으나, 올해 들어선 1분기 1.7%, 2분기 2.0%, 3분기 2.4%에 그쳤다. 이는 곧 소매판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뜻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감세가 정부 지출보다 경제성장에 1.8배 효과”

한경연 “세금 100원 깎아주면 연간 GDP 102원 증가”

감세가 정부 지출보다 경제성장에 1.8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3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정부의 재화·용역지출·국세수입과 국내총생산(GDP)의 관계를 분석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감세승수는 누적 평균 1.02였다. 세금을 100원 깎아주면, 연간 GDP가 평균 102원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재화와 용역구매에 따른 정부 지출 승수는 같은 기간 0.58이었다. 정부가 재화·용역 구매에 100원을 지출하면 연간 GDP가 58원 늘어난다는 셈이다. 감세 승수의 57% 수준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재화와 용역구매 정부 지출은 주로 소비·투자·수입의 직접적 통로를 통해서만 GDP에 영향을 미치지

국세수입 중 소득세·법인세 비중(단위: %)



\* 출처: 한국은행, 통계청

만, 감세는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에 세금을 줄이면 재원이 늘어나면서 세후 투자수익률을 높여 간접투자까지 촉진할 수 있고, 근로소득세를 낮추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취업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에 의존

하는 정도는 심화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국세수입 중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5%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감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한경연 측은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나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7개국이었다. 한국의 경우 같은 기간 두 번째로 높은 인상 폭을 기록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은 감세라는 선진국의 일반적인 글로벌 추세와는 거리가 있다”며 “경제활동 참여유인을 높이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감세가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증가보다 침체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훨씬 효율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 원·달러 환율 ‘1150원대 안착’ 4개월 만에 최저

원·달러 환율은 1150원대에 안착했다. 4개월 만에 최저치다. 재정환율인 원·엔 환율도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말 사이 나온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선호 현상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실제 미 9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12만8000명을 기록해 시장예측치 7만5000명을 크게 웃돌았다.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합의 기대감과 함께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도 1.5% 가까이 급등했다. 원·달러의 주요 저지선이 무너지며 통상리가 쇠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위안화 포지(破七, 1달러당 7위안) 하향 돌파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원·달러가 현 수준에서 10원 정도는 쉽게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단 다음 저지선은 1155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 대비 6.4원(0.55%) 떨어진 1159.2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7월 1일 1158.8원 이후 최저치다. 장중에는 1158.4원까지 떨어져 역시 7월 1일 장중 기록한 1148.9원 이후 가장 낮았다.

김민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 문 대통령·아베 ‘11분 깜짝대화’... “관계 개선책 찾자”

### 아세안+3 정상회의서 “고위급 회담 갖자”... 아베도 화답 일본 언론은 “아베, 강제징용 시정 요구” 원칙 재차 밝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대화를 통해 양국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원칙을 확인했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정상들과 회담을 나눴다. 이후 뒤늦게 도착한 아베 총리를 옆자리로 인도해 오전 8시 35분에서 8시 46분까지 11분간 단독 회담의 시간을 가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의했으며,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두 정상 간의 만남은 사전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즉석 회담이었다. 문 대통령이 출발하기 직전까지 공식 일정에 잡혀 있지 않았고, 대화가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전날 갈라만찬에서 단체 기념촬영을 하면서 가볍게 인사를 나눴지만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악수를 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회의장에 늦게 도착한 아베 총리를 발견한 뒤 먼저 다가와 옆자리로 데려오면서 적극적으로 대화가 성사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

리가 별도 만남을 가진 것은 작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의 정상회담 이후 13개월여 만이다.

반면 일본 언론에서는 다른 이야기와 나 오고 있다. 교토통신은 이날 아베 총리가 태국 방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하면서 한일 청구권협정을 준수하라는 일본 측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고 보도했다. 통신문은 두 정상이 통역만을 대동하고 1대 1로 약 10분간 접촉했다며 아베 총리가 한국 측에 한일청구권협정을 준수해 양국 관계를 건전한 상태로 되돌릴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며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니혼케이자이신문도 아베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국제법에 명확하게 위반되므로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본의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회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또 이난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일환 기자 whan@

## “文정부 후반기 최우선과제, 경제 활성화”

### 리얼미터 국민 여론조사 권력기관 개혁·통합 뒤이어

국민이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는 ‘경제 활성화’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1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남은 2년 반 임기 후반기에 집중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 활성화’ 응답이 41.1%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고 4일 밝혔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24.0%)’, ‘국민 통합(9.8%)’, ‘공정 사회 실현(9.2%)’, ‘한반도 평화·안보(7.8%)’, ‘양국화 해소(5.4%)’ 순이었다.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

(58.4%) 과 부산·울산·경남(44.4%), 대전·세종·충청(43.0%), 경기·인천(39.4%), 서울(37.9%), 광주·전라(30.7%) △연령별로 60대 이상(49.7%), 50대(46.8%), 40대(43.7%), 30대(30.4%) △이념성향별로 보수층(50.4%), 중도층(45.7%) △지지당별로 자유한국당(59.2%) 지지층과 무당층(58.3%)에서 다수였다.

반면 20대(35.5%), 진보층(48.3%) 과 더불어민주당(49.8%) 지지층에서는 권력기관 개혁을 꼽은 응답이 다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958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맑은 하늘 함께 만듭시다” 조영래(왼쪽) 환경부 장관과 리간제 중국 생태환경부장(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19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에 앞서 한중환경협력사업 ‘맑은 하늘 계획’ 업무 협약서에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총선모드’ 스위치 켜 정치권

### 민주·한국당, 총선거획단 출범 여야 ‘물갈이’ 작업에도 박차

내년 4·15 총선을 5개월가량 앞두고 여야가 일제히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총선 준비를 총괄할 총선거획단 구성을 완료했다. 총 15명으로 구성된 총선거획단은 앞으로 조직, 재정, 홍보, 정책, 전략 등 총선의 ‘밀그림’을 그리게 된다. 단장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여했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금태섭 의원과 강훈식 의원을 포함해 제윤경 의원, 정은혜 의원이 총선거획단에 포함됐고, 원외에서는 정청래 전 의원도 총선거획단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 외부에서는 김은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강선우 전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와 함께 프로그래머 출신 진보 유투버 황희두 씨가 ‘청년 또는 여성’으로 참여하게 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께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선거대책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조국 정국’ 이후에 당 일각에서 지

도부를 겨냥한 쇄신론이 제기되자 이회찬 대표가 최근 조기 선대위 구성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선대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원혜영·김부겸 의원 등이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이날 총선거획단 인선을 마무리했다. 박맹우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총선거획단은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당 상임특보단장인 이진복 의원이 총괄팀장을, 전략기획부총장 추경호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위원으로는 박덕흠·홍철호·김선동·박원수·이만희·이양수·전희경 의원과 원영섭 조직부총장, 김우석 당 대표 상근특보 등이 임명됐다.

황교안 대표는 임명식에 “총선거획단에서는 혁신 공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여야는 당내 쇄신의 척도로 평가되는 ‘물갈이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의 평가에서 하위 20% 의원들에게 공천심사 패널티를 예고하는 등 시스템 준비에 나섰다. 한국당 역시 최근 공천심사 참고자료가 될 당협위원회 당무감사를 마쳤다.

정의당은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을 영입한 데 이어 4일 이병록 전 해군 준장(제독)의 입당식을 개최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KB금융그룹 | 국민과 함께하는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신혼부부

노년부부

유리어이

직장인

노년연예보험

KB차내보험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 KB생명보험 LOVE YOURSELF 프로젝트

그랑드아트센터의 일요일 오후 조르주 마메트 쇼라

국민, 좋아요 ♥  
보험, 좋아요 ♥

KB손해보험 | KB생명보험  
LOVE YOURSELF 프로젝트

바쁜 일상 때문에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이  
[나를 위한 LOVE YOURSELF 프로젝트]로  
바쁘게 챙겨드립니다!  
꼭 필요한 보장만 모아 빈틈없이 통합관리해주는 보험

보험은 역시 KB입니다

KB손해보험 아이의 미래, 더 밝아질 수 있도록 KB 자녀보험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KB 건강보험	소중한 내차, 더 안전할 수 있도록 KB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를 쉽고 빠르게 KB 간편청구서비스	KB생명보험 나의 내 가족, 더 안심할 수 있도록 KB 종신보험
--	-------------------------------	---------------------------------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유대상 금융상품의 예약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본 보험료를 제외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기밀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장과 예하는 다음 중 어느 한가의 경우에 계약이 무효로 취급되며 지급유기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보험계약 전, 자세한 상품내용과 계약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문의 심의팀 제186495(2019.07.08)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콜센터:1544-0114 \*생명보험문의 심의팀 제2019-02195(2019-07-09) \*주소: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KB생명빌딩 www.kblife.co.kr \*고객콜센터:1588-9922

KB손해보험 | KB생명보험

# 中 쇼퍼 “광군제 때 미국産 안 산다”… 美기업 초비상

### 미중 무역전쟁 온라인으로 확산 中 78% “미국 제품 보이콧할 것” 연중 최대 쇼핑대목 앞두고 전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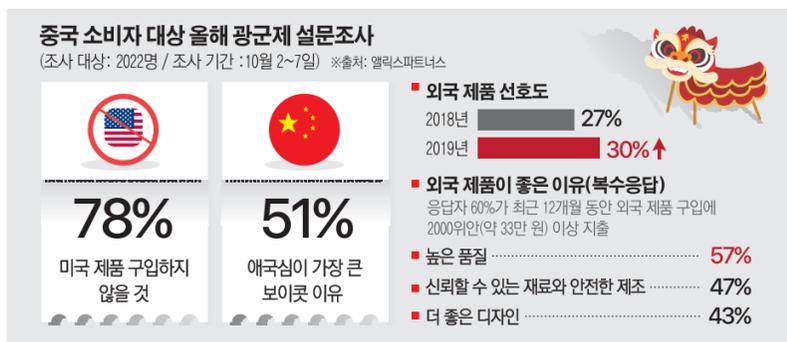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이 온라인으로 확산하면서 연중 최대의 쇼핑 대목을 앞두고 미국 기업들이 비상이다.

3일(현지시간) 포브스는 중국 온라인 쇼핑객들이 세계 최대 쇼핑축제인 광군제(光棍節·독신자의 날) 행사에서 미국 제품을 보이콧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광군제는 매년 11월 11일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개최하는 대형 할인 이벤트다. 지난해 광군제 매출은 하루 동안 약 308억 달러(약 36조 원)에 달해 과거 세계 최대 쇼핑축제였던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와 사이버먼데이(추수감사절 다음 주 월요일)를 압도했다.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은 62억 달러, 사이버먼데이는 79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컨설팅 업체 엘릭스파트너스(AlixPartners)가 지난달 말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응답자의 78%는 광군제 행사에서 미국산 대신 자국 제품을 구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그 이유를 “애국심



때문”이라고 밝혀 미중 무역전쟁을 배경으로 한 민족주의가 보이콧의 주된 이유임을 시사했다.

제이슨 응 엘릭스파트너스 이사는 “중국 소비자들이 현지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으며 최근 더욱 극대화했다”며 “중국 브랜드도 품질과 디자인, 또는 마케팅이 예전의 약한 이미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6.0%로, 분기별 집계 시작된 199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둔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중국의 쇼핑 열기는 여전하다. 베이징과 청두 등 대도시 쇼핑객들은 올해 광군제에 작년보다 54% 많은 평균 6265 위안(약 103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소비자들의 보이콧이 현실화하면 그동안 중국시장에 의지했던 많은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 포브스는 피해 입을 미국 브랜드로 ‘나이키’와 ‘달프로렌’, ‘코치’ 브랜드를 보유한 럭셔리 업체 태피스트리 등을 꼽았다.

다만 한국과 일본, 유럽 브랜드들은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 엘릭스파트너스 설문조사에서 중국 쇼핑객의 30%는 외국 브랜드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관세는 29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이 일부 관세 인상 조치를 유예했으나 이미 지금까지 적용된 관세가 막대한 수준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대만, 화웨이에 칩 팔지 마” 美 ‘中 반도체 굴기’ 또 테클

### 자국 기업들엔 거래허가 당근-채찍 ‘투트랙 전략’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대만 TSMC 공장 내부. 출처 TSMC 웹사이트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고 있다. 자국 기업들에게는 화웨이와의 거래를 허용하면서도 대만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에는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칩 판매를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대만 정부에 TSMC가 화웨이에 반도체 칩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중국으로의 기술 수출 규제 강화도 요구했다. 지난달 미국 정부 관계자는 워싱턴에서 대만 관리들을 만나 “화웨이에 수출되는 TSMC 반도체가 대만을 겨냥한 중국 미사일에 쓰이고 있다”면서 반도체 판매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FT는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규제에서 중국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풀이했다.

5월,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수출 제한 목록에 올리고 정부의 승인 없이 자국 기업들이 제품을 판매·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상무부는 유예기간을 11월 18일까지 90일 연장했지만, 화웨이 계열사 46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TSMC는 화웨이와 거래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TSMC는 퀄컴, 엔비디아, 알파벳, 알리바바 등 세계적 기업들로부터 반도체 제조를 위탁받고 있다. TSMC의 올 3분기 매출에서 중국 비율은 20%에 이르고 이 중 절반이 화웨이에서 나왔다.

미국의 압박과 관련해 TSMC 대변인은 “미국과 기술 산업 분야에서 상호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대만은 상호 규정을 준수하고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화웨이 제품을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곧 부여한다.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월버 로스 상무장관은 3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에 내린 제재를 풀어달라는 260건의 요청이 있었다”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신청서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거래 허가 요청 시 대부분은 거부를 기본으로 하는 ‘거부 추정’을 정책으로 삼고 있다면서도 “상당수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11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앞두고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약 합의가 성사된다면 회담 장소 결정에는 아주 쉽게 이를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 내 어딘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성사되면 미국 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 해제를, 중국은 농산물 구매를 각각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서영 기자 0jung2@ 변효선 기자 hsbun@



후드티 벗은 저커버그 ‘딴사람일세~’  
마크 저커버그(오른쪽)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와 그의 아내 프리실라 찬이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열린 ‘2020년 브레이크스루상’ 시상식에서 미소 짓고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브레이크스루상은 기초물리학·생명과학·수학 등 3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연구자들에게 수여된다. 마운틴뷰/AFP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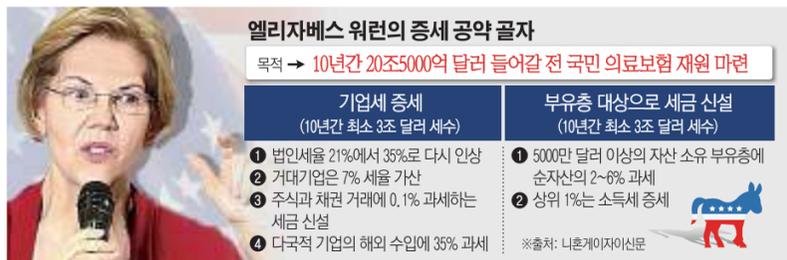
(美 민주당 대선 유력주자)

## 워런 “7000兆 증세”에 트럼프 “추가 감세” 맞불

### “전국민 의료보험 재원으로 활용” 野 초대형 증세, 與엔 호재 될 듯

미국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유력 주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초대형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급진적 노선이 오히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과 복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워런은 자신의 핵심 선거공약인 전 국민 의료보험, 즉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의 재원으로 쓰고자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10년간 6조 달러(약 6974조 원)의 세금을 걷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일본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워런의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펼쳤던 감세의 무려 4배에 달하는 금액을 증세하겠다는 것이어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신문에 따르면 워런은 5000만 달러 이상



의 자산을 가진 초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검토하고 있다. 당초 그는 부유세율을 2~3%로 검토했지만 새 제안에서는 세율을 최대 6%로 올렸다. 이를 통해 10년간 세금이 3조 달러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워런은 트럼프 행정부가 21%로 낮춘 법인세율을 다시 3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거대기업에는 7%의 세율이 가산되며,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올린 수입에 대해선 35%의 세율을 부과한다. 금융기관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때마다 구매 금액의 0.1%를 과세하는 새로운 세금도 신설해 기업 부문에서 세수를 3조~4조 달러 늘릴 방침이다.

반면 트럼프는 추가 감세로 워런 등 민주당 좌파 후보들에게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하며 추가 감세를 모색하고 있다. 2017년 말 1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를 시행한 트럼프는 중산층과 제조업 근로자,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관계자는 “워런 등 좌파에 급진적인 지지자가 모여 있어 민주당은 중도로 갈 수 없다”며 “좌파의 약진은 오히려 트럼프에게는 호재”라고 분석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직원과 부적절 관계’ 맥도날드 CEO 해고

스티브 이스터브룩(사진) 맥도날드 최고경영자(CEO)가 직원과의 ‘사적인 관계’로 인해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이날 이스터브룩을 CEO직에서 해고했다고 발표했다.

맥도날드 이사회는 이스터브룩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직원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1일 그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맥도날드는 성명에서 “이스터브룩이 직원과 ‘합의된 관계(Consensual Relationship)’를 맺어 회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합의된 관계’란 불륜이나 성관계 등을 암시한다.

미국에서는 성희롱 방지 등의 이유로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와 관련된 부하 직원과의 연애나 성관계를 금지하는 회사가 많다. 맥도날드는 이스터브룩과 직원의 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다 해도 회사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해임했다.



이스터브룩은 이날 맥도날드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개인적 행동으로 사규를 위반했다. 이는 실수였다”며 회사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스터브룩은 2015년 3월 맥도날드 CEO에 취임했다. 그가 재임하는 동안 맥도날드의 주가는 거의 두 배 올랐다.

그러나 고객 정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대척 마련에 부심하고 있었다. 이에 이스터브룩은 샌드위치 메뉴 업데이트와 레스토랑 리노베이션, 무인 계산대 ‘키오스크’ 도입, 신메뉴 개발 등 변화를 주도해왔다.

이스터브룩의 후임은 크리스 켈렌스키(51) 미국 법인 사장으로 정해졌다. 그는 성명에서 “맥도날드의 지속적 성공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서영 기자 0jung2@

한 글자로 풀어본  
사회적 가치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 짜 짜

: 사회와 기업이 단짜이 되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짜짜짜' 박수 받음을 뜻함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기업과 사회가 함께 '짜' 지어, 더욱 박수 받는 행복을 만들 수 있도록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 규제 샌드박스 시행 7개월... 신규투자 유치 '1200억'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진행 현황·지정 효과 발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후 7개월 간 1200억 원 신규 투자 유치와 225명 신규 고용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금융 서비스 테스트 진행 현황 및 지정 효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 3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효과로는, 23개 핀테크 기업에서 총 225명 고용 증가가 발생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P2P금융사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이후 기존 9명에서 16명으로 늘었으며 자동차 금융서비스 기업은 기존 12명에서 19명으로 증가했다. 또 11개 핀테크 기업이 1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연내 100억 원의 추가 투자 유치를 협의 중이다.

혁신금융 사업자의 사업 확장 효과도 컸

누적 혁신서비스 총 53건 지정  
핀테크 업체 23곳서 225명 고용  
해외 진출 등 7개 기업 사업 확장  
내일 9차 신규대상 선정 결과 발표

다. 7개 기업이 동남아시아와 영국, 일본, 홍콩 등으로 진출했거나 관련 사안을 협의 중이다. 아울러 '온-오프 해외여행보험'은 상품 출시 이후 기존 3만4000건 수준에서 올해 약 6만 건으로 가입이 급증했다.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은 대출신청 사용자 3000명, 평균 이자 절감 비용은 11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53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효과**

**일자리 증가** ※ 출처: 금융위원회  
- 23개 핀테크기업에서 총 225명 고용 증가

**투자 유치**  
- 11개 핀테크기업이 1200억 원 규모 투자 유치 (연내 100억 원 추가 투자 유치 협의중)

**외국 진출**  
- 7개 핀테크기업(스몰티켓, 공감랩, 페이스민트, 지속가능발전소, 다렉셔널, 핀테크, 아이코루프 등) 동남아시아, 영국, 일본, 홍콩 등 6개국 진출 또는 협의 중

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 15건의 서비스는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12건은 내년 6월 출시를 목표로 테스트를 준비 중이며 나머지 15건은 추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사전 준비 작업 중이다. 다만, 전산개발과 협업금융사 선정에 추가 시일이 소요돼 테스트 개시에는 문제가 없

는 상황이다. 앞으로 금융위는 샌드박스 설명회와 간담회를 상시 열고 기업의 테스트 진행 관련 어려움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협업 기회도 늘 제공한다. 혁신금융 사업자의 법률·보안 컨설팅 지원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등

과 협의해 상시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핀테크 보안지원' 사업에 약 1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혁신금융 서비스 출시와 운영현황 점검을 위한 '일대일 멘토링'도 함께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 서비스 테스트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6일 제9차 혁신금융 서비스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시행 1년인 내년 3월까지 총 100건 지정을 목표로 정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일관성을 갖고 더욱 과감하게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하나머니' 누적 사용 1억건 육박

하나금융은 2015년 선보인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의 누적 사용 건수가 9800건을 넘어섰다고 4일 밝혔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월평균 사용 건수가 300만 건임을 고려하면, 이달 중 누적 건수 1억 건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나멤버스는 자유로운 교환과 포인트 현금화로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가입 고객은 1000만 명에 달한다. 멤버스 포인트인 '하나머니'는 출시 후 4년간 약 5300억 원이 사용됐다.

하나금융은 출시 4주년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이벤트를 한다. '하나멤버스' 앱에 접속해 본인의 '하나머니' 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면 최대 100만 원의 '하나머니'를 받을 수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대부업 대출, 중금리로 전환하세요"

부산銀, 고객 채무관리 지원  
年 최고 금리 10.5%로 대환

BNK부산은행이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로 전환해준다.

BNK부산은행은 채무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한 '채무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은 '고금리 대한 새희망홀씨' 상품을 출시한다. 대부업체 또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연 최고 24%에 달하는 고금리를 사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금리 10.5%로 대환하는 상품이다.

은행권에서 공유하는 대부업 대출 정보를 활용해 고금리 상품을 성실하

게 상환 중인 고객에게 금융 비용 완화와 신용등급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충한도는 100억 원 규모며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500만 원 대출이 있는 고객이 이 상품을 이용하면 연간 최대 67만 5000원의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다.

BNK부산은행은 소득과 비교해 과도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실직 또는 폐업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대출 상환 부담 경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5년 이내 단기 할부상환 대출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일시 상환 대출 원금을 최대 3회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우리금융, 고객정보 보호 표준정책 수립

업계 첫 'ITU-T' 운영체계 활용  
계열사별 자율 점검 체계 확립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표준화된 고객 정보보호 정책 수립과 자율적 점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그룹표준 정보보호 자율 운영체계'를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운영체계는 금융권 최초로 'ITU-T'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를 활용해 정보보호 시스템 관리영역을 체계화했다. ITU-T는 전기통신 분야 세계 최고 국제기구인 ITU의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을 의미한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표준정책 수립을 위해 6월부터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해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증권, 우리신용정보가 공동 참여하는 TFT를 진행했다. 4개의 정보보호 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에 기반해 그룹사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표준 체크리스트를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그룹 정보보호 표준정책을 수립했다.

또, 각 그룹사는 'PDCA (Plan-Do-Check-Act)' 기법을 활용해 그룹 표준정책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PDCA 기법은 수립된 그룹 정보보호 표준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그룹별 정보보호 조직과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운영체계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고객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날로 증가하는 외부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신규로 편입될 자회사의 정보보호 수준 진단에도 이번 표준 운영체계를 적용하는 등 그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www.douzone.com

회사 밖에서 급한 임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에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내역 자동수집, 자동분계,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 인공지능 ERP

##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을 제공

**기업용 ERP**

- 회계관리
- 인사-급여관리
- 영업관리
- 무역관리
- 구매-재재관리
- 생산관리
- 외주관리
- 서비스관리
- 경영정보관리
- 더존 iCUBE
- 더존 iCUBE Cloud Edition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 예산관리
- 자산관리
- 후원자관리
- 회계관리
- 인사-급여관리
- 경영정보관리
- 영업관리
- 구매-재재관리
- 생산관리
- 더존 iCUBE G20
- 더존 iCUBE G20 Cloud Edition

**더존 ERP**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문의 1688-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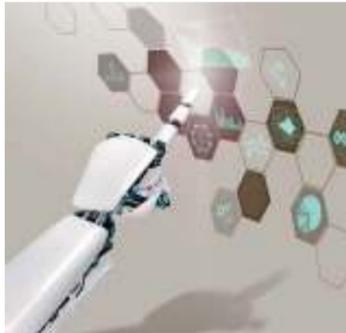
# 음성명령·버튼 조작 없어도 알아서 작동... 일상생활과 컴퓨터 완전한 융합 첨단 ICT의 종착점 'ambient 컴퓨팅' 시대 온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가 몸의 변화를 인식해 조명을 밝혀주고, 주방에 들어서면 커피머신에서 저절로 커피가 내려지고, 토스트가 구워진다. 차에 오르면 자동으로 안전띠가 채워지며 시동이 걸린다. 차는 목표 출근 시간에 늦지 않도록 알아서 경로를 선택, 자율주행한다.

## AI·사물인터넷·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따라 센서 등 시스템반도체 성장 전망...메모리 수요도 늘 것

컴퓨터가 우리 주변에 공기처럼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진 'ambient(Ambient) 컴퓨팅'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현재도 다양한 제품에 인공지능이 탑재돼 있지만, 이를 사용하기 위해 스마트폰 등에 말을 하거나 명령어를 입력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들의 종착점이 될 ambient 컴퓨팅은 사용자가 기기와 상호작용을 느끼지 않아도 컴퓨터가 실행되는 환경이다. 특히 ambient 컴퓨팅이 일상화된 시기에 반도체는 필수품이다. 올해 불황기를 맞았던 반도체 업계에 반등의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향후 반도체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스마트홈, 자율주행 차량 등의 기술은 모두 ambient 컴퓨팅을 향해 발전하고 있다. ambient 컴퓨팅 시대에 사용자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 없이 일상 속에 녹아든 컴퓨터를 사용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물에 반도체가 탑재돼 인공지능



로 상호 작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반도체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ambient 컴퓨팅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테크 칼럼니스트인 윌트 모스버그가 2017년 쓴 칼럼을 통해 중요한 IT 패러다임으로 강조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모스버그는 미래에는 컴퓨터가 우리의 눈에서 사라질 것이고, 공기처럼 존재하되 느끼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폰으로 디지털을 접한 아이들은 TV를 볼 때도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넘기려는 모습을 보인다. 아이들은 컴퓨터라는 인식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TV를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컴퓨팅 기기를 다루듯 행동하는 것. 이처럼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대하는 행동방식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ambient 컴퓨팅 시대로 넘어갈 것이라 관측이다. ambient 컴퓨팅이 적용되려면 연결성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와 반도체 기술력이 갖춰져야 한다. 인프라의 대표적 예는 삼성전자 AI 플랫폼 '빅스비'다. 빅스비가 탑재된 갤럭시 스마트폰, 스마트TV, 냉장고 등을 제어할 때 사용자는 음성으로 빅스비를 소환해 원하는 명령어를 말하기만 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출시하는 모든 제품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의 경우, 사물인터넷의 원동력

인 센서 등 시스템반도체가 중요하다. 전승우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물인터넷 기기가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이를 위한 각 반도체의 성능 수준이 높아지고, 적용 분야도 한층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센서, 통신, 프로세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모리반도체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5G(5세대 이동통신)와 AI, IoT가 발전할수록 데이터는 급증한다. 이를 위해선 데이터센터 투자가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메모리 가격 급락세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본격적인 5G 도입과 PC 증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 반도체 수출은 2017년(979억 달러)과 비슷하거나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영록 기자 syr@

## 현대로템, 국내 첫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출고

수주 3년 만에 초도편성 내놔  
내년 경전선·서해선 등 투입  
해외 고속열차시장 납품 기대



현대로템은 4일 경남 창원공장에서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EMU-250(사진)'의 초도 편성이 출고됐다고 밝혔다. EMU-250은 현대로템이 2016년 코레일로부터 114량을 수주한 이래 약 3년 만에 초도 편성이 출고된 것으로 경전선, 중앙선, 서해선, 중부내륙선 등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운행은 내년에 시작할 전망이다. EMU-250은 KTX-산천, SRT 등 동력 집중식 고속열차밖에 없던 국내에 처음으로

로 도입되는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다.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는 동력장치가 열차 맨 앞과 뒤쪽의 동력차에만 달린 동력 집중식과 달리 동력장치가 열차를 구성하는 차량마다 하부에 분산 배치된 차량이다.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는 가·감속 성능

이 뛰어나 곡선 선로가 많고 역 간 거리가 짧은 국내 철도환경에 효율적인 차량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동력 집중식 고속열차와 같은 별도의 동력차 없이 열차의 모든 차량이 객실로 구성되기 때문에 승객 수용능력도 우수하다.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는 글로벌 고속열차 시장에서도 대다수의 발주량을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되는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의 성공적 영업 운영을 위해 품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고품질의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를 납품해 새로운 고속열차 시대를 열어가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승 기자 kissong@



LG,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 체험단 모집  
LG전자가 4일부터 24일까지 세계 첫 캡슐형 수제맥주제조기 LG 홈브루를 알리기 위해 'LG 홈브루 50일 체험단'을 모집한다. 모든 미션을 완료한 체험단은 LG 홈브루를 일시불로 구매할 경우 약 7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 한화시스템 '천마 탐지추적기' 2차 계약 체결

한화시스템이 1일 방위사업청과 1300억 원 규모의 천마 탐지추적장치 성과기반 군수지원(PBL) 2차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PBL이란 무기체계 개발 단계에서 생산 업체를 선정해 뒤 개발, 배치, 운영, 유지 등 전 분야 또는 일부분을 업체가 전담하는 제도다. 이번 계약으로 한화시스템은 육군의 단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천마의 탐지·추적 장비에 대한 운용 유지를 맡는다. 한화시스템은 9월 고장 복구기간을 줄이

고, 가동률을 높이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두며 5년간 진행던 1차 사업을 완료했다. 한화시스템은 첨단 방산전자 분야에서 연구·개발(R&D)로 확보한 기술력을 종합군수지원시스템 분야로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방산 업계 최초로 운영 유지 전담부서인 MRO 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천마 PBL 1차 사업 성과를 2차 사업으로 이어가며 우리 군의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 3년 만에 새 모습... '더 뉴 그랜저' 사전계약 실시

현대자동차가 3년 만에 선보인 부분변경 모델 '더 뉴 그랜저(사진)'의 사전계약을 4일 시작했다. 더 뉴 그랜저는 △2.5 가솔린 △3.3 가솔린 △2.4 하이브리드 △3.0 LPi 등 총 네 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출시된다. 3.3 가솔린 모델은 6기통 3.3 가솔린 엔진을 얹어 최고출력 290마력의 힘을 낸다. 2.5 가솔린 모델은 차세대 엔진 스마트스트림 G2.5 엔진을 새로 얹어 기존 2.4 가솔린 모델 대비 연비와 동력 성능, 정속

연비·동력성능·정속성 개선 공기청정 시스템 첫 적용 2.5가솔린, 3294만원부터  
성을 모두 개선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개선된 17인치 하이브리드 전용 에어로 휠을 장착해 공력 성능을 높였고, 3.0 LPi 모델은 LPi 탱크를 기존 실린더 형태 대신 원형으로 만들어 적재 공간을 키웠다. 더 뉴 그랜저는 최첨단 편의·안전사양도 갖췄다. 현대차 최초로 적용된 공기청정 시스템은 실내 공기 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마이크로 에어 필터를 통해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장시간 주행 시 허리 지지대를 자동으로 작동시켜 운전자의 피로를 풀어주는 2세대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도 제공한다. 또한 △후진 가이드 램프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전방 충돌방지 보조 △교차로 대항차 기술 △후측방 모니터 △안전하차 보조(SEA)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등의 안전 사양도 갖췄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현대차의 새 디자인 방향성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적용했다. 전장은 4990mm로 60mm 늘어나 차체가 더욱 웅장해졌다. 기존보다 40mm 늘어난 휠베이스와 10mm 늘어난 전폭은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그릴은 보석모양의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으로 꾸며졌고, 주간주행등(DRL)으로 '히든 라이팅 램프'가 전 트림에 기본 적용됐다. 판매 가격은 △2.5 가솔린 3294만~4158만 원 △3.3 가솔린 3578만~4399만 원 △2.4 하이브리드 3669만~4539만 원 △3.0 LPi 3328만~3766만 원 범위에서 가격이 확정될 예정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 '아시아나 뉴욕 항공편 타면 현대미술관 입장권 드려요'

아시아나항공이 인천~뉴욕 노선 증편을 기념해 뉴욕 현대미술관(MoMA) 입장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10월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인천~뉴욕 증편 항공편(OZ224) 항공편을 구매하고, 24일부터 12월 6일

사이에 탑승하는 아시아나클럽 고객에게 MoMA 입장권을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 내 항공편을 구매한 고객들은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뉴욕 타임스퀘어 인근에 있는 여행 전문 회사인 '타미스'를 방문해 아시아나항공 탑승권을 보여 주면 MoMA 입장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클래스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한정한다. 김기승 기자 kissong@

## “파업을 위한 파업, 더이상 안돼” 車노조 ‘실리 추구’ 새바람 분다

완성차 업계의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노동조합도 투쟁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실리를 추구하고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에 최근 ‘새미래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의 제3노조가 설립됐다. 급속노조 출신 1노조 지도부의 조직운영 방식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새 노조를 결성한 것이다.

새 노조 설립을 주도한 고용환 임시위원장은 “현재 지도부는 올해 임단협에서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위한 파업’을 감행했다”며 “그럼에도 임금인상과 신차 물량 배정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생산량 감소를 마주한 르노삼성차는 올해 말로 닛산 로고 위탁생산 종료로 앞두고 있어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제3노조 설립은 이러한 회사의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낀 조합원들이 대안 세력을 구성한 결과로 분석된다. 현재 공식 지도부가 없는 상황임에도 새미래 노조 조합원은 이미 80명을 넘어서며 급속노조 산하 제2노조 조합원 수(40여 명)를 앞질렀다.

기아자동차 노조 집행부 선거에서도 실리를 추구한 후보가 조합원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전국급속노조 기아차 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실시된 차기(26대) 지도부 선거 결선투표에서 강경성향의 최종태 후보가 53%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광주형 일자리를 찬성하는 등 실리를 내세운 박재홍 후보는 2위에 머물렀지만, 결선투표 이전 5개 후보가 맞붙은 경쟁에서 최 후보와 890여 표 차이를 보이며 선전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 아시아나 본입찰 D-2... 막판 변수는

### 애경 vs HDC ‘2파전’에 무게 인수비용 1.5조 달해 자금 부담 유류세 담합 등 과징금 부과 우려 뒤늦게 깜짝 후보 등장 가능성도

아시아나항공 매각 본입찰이 7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애경그룹-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두 곳의 ‘2파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매각가, 아시아나를 둘러싼 약재, 새로운 후보 등장 등을 막판 3대 변수로 꼽았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크레디트스위스(CS)는 지난달 적격인수후보(쇼트리스트)들에 최소 신주 인수 규모를 8000억 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구주 가치 약 4000억 원(31.05%), 8000억 원 이상 규모의 신주,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합하면 1조5000억 원 이상의 인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어, 자금 여력이 낮은 참여자는 상당한 부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연합뉴스

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가장 적극적인 인수 의사를 밝혔지만, 실탄이 다소 부족했던 애경그룹은 1조 원 이상의 운용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손을 잡았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보유 현금성 자산(유동자산 기준 5034억 원), 스톤브릿지캐피탈 투자를 비롯해 추가로 필요한 금액 조달을 위해 인수금융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애경 컨소시엄이 인수금융으로 자금을 얼마나 더 조달할 수 있을지와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과연 이를 적정 금액으로 판단할지가 매각 성사의 관건이다.

아시아나항공을 둘러싼 잇단 약재들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은 KLM 등 22개 항공사와 함께 유류할증료를 담합한 혐의로 EU 집행위원회의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나온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 기내식 분쟁과 관련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

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론을 내, 아시아나항공 역시 과징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의 새로운 주인이 9조 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도 상당한 부담이다. 아시아나항공의 2분기 기준 부채는 총 9조5989억 원으로 부채 비율은 660%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회계 기준으로 항공사들의 부채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예비입찰에 참여하며 인수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뒤늦게 깜짝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SK는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인수 가능한 후보’로 거론된다. 당초부터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으며,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그 가능성은 높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2012년 SK그룹이 하이닉스반도체(SK하이닉스) 인수 당시 마지막까지 버티며 매각가를 낮춘 전례가 있어서다.

그룹 자산 중 30% 가까이 차지하는 거물로 성장한 SK하이닉스의 당시 인수금액이 3조 원을 조금 넘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시아나항공 매각가로 예상되는 금액(1조5000억~2조 원)에 대해 SK는 여전히 비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SK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통신사와 항공사의 시너지, 항공으로 운송되는 반도체와의 연계, 높아질 항공유 시장 점유율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the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쌍용차 유럽서 시동... 코란도 시승회

쌍용자동차가 코란도 기술린 모델을 유럽 시장에 출시하며 미디어 시승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글로벌 판매에 나섰다. 쌍용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 푸에르타 아메리카 호텔에서 유럽 지역 주요 언론을 초청해 코란도 미디어 출시 및 시승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쌍용차

## 인공지능 전문가 한자리에... ‘삼성 AI 포럼 2019’

삼성전자가 최근 화두가 되는 인공지능(AI) 및 딥러닝 기술을 논의하고 교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4일부터 이틀간 ‘삼성 AI 포럼 2019’를 개최한다.

삼성 AI 포럼은 AI 석학들을 초청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행사다.

첫째 날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주관으로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둘째 날은 삼성리서치 주관으로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각각 열린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적 연구자들과 함께 AI 기술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세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자”고 말했다.

포럼 첫째 날은 딥러닝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참여해 딥러닝 기반 세계 이해, 자율형 시스템 등 더욱 진화되고 확장된 인공지능 기술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행사에서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수행하는 ‘온디바이스 AI 통역 기술’도 선보였다.

삼성리서치가 주관하는 둘째 날은 세계 각국에서 최근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AI 전문가들의 다양한 강연을 들을 수 있다.

기조 연설에 나선 노아 스미스 교수는 기존 자연어 처리 딥러닝 모델들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설명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인 합리적 순환신경망을 소개한다.

압이나브 굽타 교수는 기존 지도 학습의 한계를 넘어선 대규모 자기 시각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미래금융 위시리스트

- ✓ 국내에서 쌓은 포인트를 해외에서도 쓸 수 있을까?
- ✓ 해외에서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하고 싶다

# 손님의 기대 하나 하나를 모아 더 세계적인 금융을 만듭니다

손님의 무대가 넓어진 만큼 금융의 능력도 커져야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더 세계적인 미래금융을 만들고 있습니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해외에서 국내 포인트를 사용해서 결제하는  
글로벌 지급결제 플랫폼



해외에서도 휴대폰 터치만으로 결제하는  
해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 “나만을 위한 올레tv”... KT, IPTV 패러다임 바꾼다

## IPTV 개인화 '3대 혁신 서비스' 발표

‘슈퍼 VR tv’ IPTV를 4K UHD 화질의 VR로 시청  
‘UHD 4’ 실내서 이동 가능한 초소형 무선 셋톱박스  
‘AI 큐레이션’ AI가 가족 구성원별 콘텐츠 맞춤 추천

KT가 ‘나만을 위한 TV’로 IPTV 패러다임을 바꾼다.

4일 KT는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AI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IPTV 3대 혁신 서비스를 발표했다. KT는 미디어 이용 행태가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데 맞춰 IPTV를 VR로 구현한 색다른 나만의 TV ‘슈퍼 VR tv’ △내 마음대로 이동이 가능한 초소형 무선 셋톱박스 ‘올레 tv UHD 4’(이하 UHD 4) △나를 위한 콘텐츠 추천 ‘AI 큐레이션’을 공개하며, 국내 IPTV 시장을 이끌고 있는 올레 tv가 ‘나만을 위한 TV’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KT는 세계 최초로 VR 환경에서 IPTV를 즐길 수 있는 ‘슈퍼 VR tv’를 출시했다. 슈퍼 VR tv는 180인치 와이드맥스 스크린에서 21만여 편의 주문형 비디오(VOD)는 물론 올레 tv의 270여 개의 실시간 채널을 실제 영화관에서 보는 것처럼

즐길 수 있다. 선택한 콘텐츠를 나만의 공간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즐길 수 있도록 화면을 최적화했다. 장시간 사용해도 어지럽지 않도록 사람의 시야각과 가장 유사한 인체공학적인 사용자 환경(UI)을 새롭게 설계했다. 또한 화질 손실 없이 4K UHD 영상 품질을 VR로 그대로 유지하는 등 기술적 측면에 총력을 기울였다. 슈퍼 VR tv는 올레 tv의 실시간 채널과 VOD는 물론 게임·스포츠 등 3000여 편의 VR 전용 콘텐츠까지 월 9900원에 즐길 수 있다. 슈퍼 VR tv 전용 요금제 3종에 가입하면 슈퍼 VR 기기를 월 1만1000원(3년 약정, VAT 포함)에 이용 가능하다. KT 인터넷, 올레 tv, 올레 tv 복수 단말 신규 가입자에게 슈퍼 VR 기기를 무료로 제공한다.

KT는 VR를 ‘TV 시청’이라는 일상의 영역으로 가져온 슈퍼 VR tv가 VR 콘텐츠의 다양성 확대는 물론 VR를 친숙하게 만들어 국내 VR 대중화의 기폭제로 만들



KT 모델들이 4일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AI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IPTV 3대 혁신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KT

겠다는 목표다.

KT는 국내 최고 수준의 초소형 무선 셋톱박스를 통해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IPTV도 서비스한다. IPTV는 거실에서 다같이 즐긴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실내 어디서나 IPTV를 즐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KT가 20일 출시 예정인 ‘UHD 4’는 국내에서 크기(57 x 89 x 23mm)가 가장 작고, 대기전력 소모가 가장 적다. 크기는 기

존 UHD 셋톱박스에 비해 5분의 1 수준, 대기전력 소모는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연간 가계 전기요금을 최대 3만 원까지 줄일 수 있다. 발열도 적어 초소형, 저전력, 저발열 3박자를 갖췄다. UHD 4는 인터넷선은 물론 전원 선도 필요 없다. 기가 와이파이가 있으면 집 안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해 설치할 수 있다. 작은 크기로 TV 뒤에 완벽히 숨길 수 있어 신혼집이나 1인 가구, 인테리어를 중요시

하는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T는 TV 이용 행태가 ‘가족’에서 ‘개인’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이를 반영한 개인별 AI 추천 서비스도 도입한다. 올레 tv ‘AI 큐레이션’은 1개의 IPTV에 최대 4개의 계정을 제공해 구성원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집’ 계정을 기본으로 두고, 개인별 계정을 3개까지 추가할 수 있다. KT는 AI 큐레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올레 tv 820만 가입자의 VOD 시청 이력뿐만 아니라 실시간 채널, 모바일 시청 이력까지 딥러닝했다. 올레 tv 이용자들은 21만 편이 넘는 VOD 중 콘텐츠를 선택하기까지 평균 20편 이상의 콘텐츠를 오가며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큐레이션은 UHD와 기가지니 셋톱박스에서 12일 상용화할 예정이며, 다른 셋톱박스는 기종별로 순차 적용된다. 향후에는 홈쇼핑이나 광고 시청 이력까지 데이터 분석 범위를 확대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을 보다 정교화할 계획이다.

구현도 KT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사장)은 “전통적인 가구 단위 서비스로 인식해왔던 올레 tv가 이제 개인화라는 미디어 트렌드에 맞춰 새롭게 혁신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 “궁금한 직무정보·회사생활 현직자가 직접 답해드려요”

### 인터뷰

#### 이재성 ‘코멘토’ 대표

“취업 학원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회사의 지향점은 기회의 평등이예요.”

온라인 취업 멘토링 플랫폼 코멘토. 마치 사회적 기업 같은 목표를 가진 회사 대표의 발언이지만, 사실 사업모델을 안정적으로 갖춘 영리 목적 플랫폼이다.

이재성 대표는 2015년 코멘토를 창업했다. 코멘토는 현직자가 가진 회사의 직무에 관한 정보를 구직자에게 매개해주는 거래 플랫폼이다.

코멘토에서는 구직자들이 취직하고 싶은 회사의 직무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질문하는 것은 무료지만, 타인의 질문을 열람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6개월간 1만 6900원의 요금을 내면 무제한으로 타인의 질문을 볼 수 있다.

이렇게만 보면 구직자 각자가 자기 질문만 무료로 이용하고 말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구직자가 비용을 내고 타인의 질문을 열람한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채용은 필요한 시점에 답을 얻는 게 중요해서, 빠른 정보 취득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구직자들은 각 질문에 답변할 때 만족도에 따라 최대 1500원에 상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코멘토는 올해 4월부터 ‘직무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직무부트캠프’는 현직자가 지도하는 실무를 구직자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1명의 현직자 멘토가 최대 8명의 수강생에게 실무와 관



이재성 코멘토 대표가 서울스퀘어빌딩 위워크에 위치한 코멘토 사무실에서 인터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온라인 취업 멘토링 플랫폼  
본인이 직접 질문하면 무료  
타인 질문 열람만 비용 들어  
구직자 실무체험 캠프 운영

련된 과제를 내주고 피드백을 받는 서비스다.

이 대표가 생각하는 코멘토의 비전은 취업뿐 아니라 이직, 전직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직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저는 전 세계 사람 40%는 현재 자신이 가진 직업을 바꾸는 게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직무부트캠프에 참여해 보고 직업이 자신과 안 맞다고 생각해 다른 진로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제 그분들에게 얼마나 값진 자산입니까. 특정 직무에 대한 정보량의 불평등. 그 불평등을 줄여서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코멘토’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김정용 기자 cogito@

## “제로페이 성공이 곧 한국 핀테크의 성공”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출범

제로페이 운영 민간 재단법인  
이사장에 윤원수 웹캐시 대표

“신용카드 정착때도 각종 논란  
금융산업 미래 나아가기 위해  
제로페이는 꼭 넘어야 할 장벽”

“대한민국은 과거에 감혀 있다. 2015년 핀테크 산업이 막 시작될 때부터 중국에 뒤처졌다. 지금 상태라면 1~2년 뒤 베트남, 캄보디아에도 뒤처질 것이다.”

윤원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이 4일 ‘제로페이’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이렇게 밝혔다. 이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서울 중구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향후 계획과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제로페이 운영 민간 재단법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제로페이 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제로페이 활용률을 높이고자 지난달 설립을 허가했다. 초대 이사장은 윤원수 웹캐시 대표가 맡았다.

윤원수 이사장은 카드 결제 방식을 ‘과거’로 규정하며, 금융 산업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제로페이의 성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인프라는 세계 최고이지만, 모바일 직불 경제망은 없다”며 “이대로 2~3년이 지나면 끔찍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로페이 사업을 맡아서 해야겠다고 생각한 제일 큰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로페이가 도입된 뒤 11개월간 누적 결제액은 470억 원을 넘어섰다. 월별 결제금액은 올해 9월 92억 6200만 원을 기록했다. 가맹점 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30



윤원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이 4일 기자간담회에서 제로페이의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만 개까지 늘었다. 진흥원은 내년 3월 50만 개, 2021년 3월 100만 개까지 가맹점을 늘릴 것이라고 제시했다.

윤 이사장은 제로페이를 둘러싼 논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며 일목요연하게 반박했다. 첫 번째 논란은 ‘관치페이’라는 오명이다. 정부가 세금을 들여 민간 사업에 왜 관여하는지에 관한 논란은 제로페이 탄생 전부터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이사장은 “제로페이는 페이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자를 위한 ‘가맹점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달 31일부터 온라인 제로페이를 시작해 신한은행, 부산은행, 네이버페이, 하나멤버스 등 13개 결제기관 앱을 통해 온라인 제로페이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윤 이사장은 “수백 개의 페이 사업자들이 제로페이에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번째는 편의성 문제다. 윤 이사장은 QR코드로 결제하는 제로페이가 카드 결

제 방식보다 불편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8월 제로페이를 새로운 결제 방식과 접목하기 위한 ‘피칭대회’를 예로 들어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중국 식당에서는 테이블에 앉으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아예 결제라는 의미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세 번째는 혜택이 적다는 문제다. 윤 이사장은 가맹점이 50만, 100만 개 등 확장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 가맹점이 30만 개이다 보니 간편 결제 업체들이 고객 유인 이벤트를 소극적”이라며 “가맹점만 늘어나면 수많은 혜택이 나올 것이고, 결국 시간 문제”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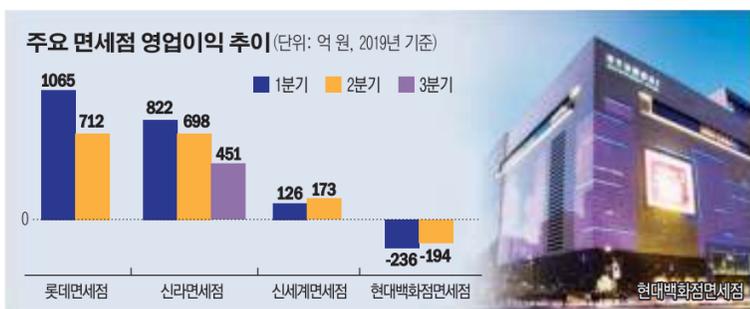
윤 이사장은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부가 나서서 신용카드 정책을 정착시키려 했을 때와 지금의 제로페이 논란이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시 정부가 나서서 신용카드를 쓰라고 독려했는데 언론에서는 ‘이용률이 낮다’, ‘유명 업소에서는 거절당한다’ 등 문제를 제기하곤 했다”고 했다.

이어 “제로페이는 40년의 습관을 뛰어넘는 일”이라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누군가는 꼭 넘어야 할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로페이에 익숙해지는 날 핀테크 금융으로 발달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2년 뒤 제로페이는 생활이 될 것이고, 소상공인들은 장사에만 신경 쓸 수 있어 4차 산업의 혜택을 제일 크게 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이사장은 일단 모든 역량을 가맹점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외상 기능 도입이나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 도입 등에 관한 질문에 모두 그는 “당장 우선 순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본질은 ‘가맹점 확대’라며 ‘재단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가맹점을 늘리는 데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 셔터 내리는 시내면세점... 특허입찰 흥행도 '비상'

2016년 면세사업 시작한  
한화·두산그룹 폐점 수순  
관세청 신규 사업권 입찰에  
"출혈경쟁 심화" 빅3 보이콧  
후발 현대백면세점만 관심



면세점 위기설이 확산되면서 14일 예정된 시내 면세점 입찰이 흥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마지막 남은 오프라인 유통 기회의 땅' 등 각종 수식어가 따라붙던 면세점은 시내면세점의 증가로 인한 출혈경쟁으로 적자와 폐점 수순을 밟고 있다.

2016년 면세사업을 시작한 한화그룹은 3년간 10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6월 갤럭시 온라인 면세점 사업을 중단한 데 이어 9월에는 갤럭시아면세점 63을 접었다. 같은 해 뛰어난 두산그룹 역시 3년 만인 지난달 면세 사업권을 반납하고 내년 4월 문을 닫기로 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14일 까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을 받지만 입찰에 참여할 기업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5월 소비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등 대기업 시내 면세점 특허 5개를 추가 발급하고, 시내면세점이 없는 충남에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특허 1개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전국 시내면세점은 총 26개가, 서울에만 16개가 몰리게 된다.

업계에서는 면세점 빅3(롯데, 신라, 신세계)가 이번 시내면세점 입찰 보이콧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면세 사업

에 뛰어난 현대백화점면세점만이 이번 입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무역센터점만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강남보다 외국인 상권이 두터운 강북지역 공략을 위해 이번 입찰에 적극적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강북 지역에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했지만 이번에 사업을 정리하는 두산면세점의 공간과 인력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신규 입찰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두타면세점이 관광객 유치에 수월한 명동 인근, 동대문에 위치한 만큼 강남에 이어 강북에 면세 사업을 내 구색을 맞추려는 현대백화점면세점 입장에서는 고려할 만한 선택지라는 업계의 관측이다. 두타면세점 자리에서 면세점을 열 경우 면세점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두산 측에서 제안이 들어와 두타면세점 입지를 면세점 사업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약이 잘 진행될 경우 신규 면세 사업자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빅3 면세점 외 현재 면세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소·중견 사업자는 이번 입찰에 소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 적자를 내며 악화일로

를 걷는 만큼 추가 면세사업이 수익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 때문이다. 동화면세점은 2016년 3547억 원으로 매출 최고점을 찍은 후 적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영업손실 규모는 2017년 199억 원에서 작년 105억 원으로 줄었지만, 이는 브랜드 철수에 따른 운영 비용이 줄어든 결과다. 올 상반기 매출은 149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줄었다. 하나투어의 계열사인 에스엠면세점도 마찬가지다. 에스엠 시내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5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하락했고, 올 상반기 매출도 지난해보다 12.7% 하락한 254억 원에 그쳤다. 올해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도 기대 이하의 실적을 거두고 있어 영업이익 개선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관세청의 면세사업권 남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2016년부터 사업에 뛰어들어 기업들이 안착하기도 전 추가 특허 신청을 예고하면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면세 사업이 제한적이던 때는 사업권이 곧 수익이었지만 무분별한 면세사업권 남발로 기존 빅2 외에 새롭게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다"며 "사업권 남발이 면세산업 전체를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미선 기자 only@



롯데리아 '리아 미라클버거(좌)'와 CU '채식주의' 시리즈

## 급성장하는 비건 시장 식품업계 '신성장동력'

채식 인구 10년 새 10배  
LF 비건 지향 화장품 '아떼'  
CU '채식주의' HMR 등 출시

패티로 만든 '리아미라클버거'를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롯데리아는 6월 직영점 3개 점포에서 식물성 패티 버거를 테스트 판매한 바 있다.

유통업계가 베지테리언 공략에 나섰다. 채식주의자를 겨냥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경쟁업체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입한 업체의 경우 '비건'을 차별화 전략으로 택해 눈길을 끈다.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채식주의자는 2008년 15만 명에서 지난해 150만 명으로 급증했다. 10년 사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국내 비건 음식점은 350여 곳에 그쳤다.

소비재업계는 경쟁적으로 비건을 내세운 제품을 선보이고, 유통업계 역시 비건 제품만 모아놓은 카테고리 신설하는 등 베지테리언을 겨냥한 시장 선점에 분주하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5일부터 100% 순식물성 원재료를 활용해 만든 '채식주의 간편식 시리즈(도시락, 버거, 김밥)'를 차례로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편의점 업계에서 채식주의자를 위한 간편식 시리즈를 출시한 것은 CU가 최초다.

CU 채식주의의 간편식은 100% 순식물성 단백질 고기를 사용했다. 도시락 구성에 포함된 파스타는 달걀, 우유, 버터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펜네(Penne)를, 채식주의 버거에 들어가는 번과 소스에서 동물성 성분을 완전히 배제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업체 최초로 식물성 패티 버거를 테스트 출시했던 롯데리아는 내년 100% 식물성

하반기 여성 화장품 시장에 처음 진출한 생활문화기업 LF는 첫 자체 화장품 브랜드로 비건 지향 화장품 '아떼(ATHE)'를 선보였다. 아떼는 스위스 유명 화장품 원료 연구소 '미벨(Mibelle)'사와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스위스산 기능성 식물원료를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동물성 성분, 12가지 유해성분, 유전자 변형원료를 첨가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검증기관 '이브(EVE)'사로부터 비건 화장품 인증을 받았다.

아떼의 인기 제품인 '어센틱 립밤'은 국내 최초로 비건 인증을 받은 립스틱으로 '04 브레이크' 컬러의 경우 출시 2주 만에 LF 몰에서 품절되기도 했다. 에이블씨엔씨 화장품 브랜드 어퓨 역시 올해 100% 비건 화장품인 '맑은 솔삭 라인' 6품목을 출시했다. 프리미엄 키즈 섹션 토타스 코리아도 8월 국내 최초 비건 유아 스킨케어 브랜드 몽쥬르(MON JOUR)를 새롭게 론칭했다.

온라인 푸드마켓 헬로네이처도 비건 장보기를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비건 전문 존(#VEGAN)을 사이트 내 새로 오픈해 선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채식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이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또 채식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진 유통시장에서 살아남는 차별화된 방법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 다시 돌아온 린잇고~

홈플러스는 2014년 개봉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겨울왕국'의 속편 개봉을 앞두고 관련 캐릭터 상품 50여 종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겨울왕국' 주인공들의 모습이 담긴 침구쿠션 10여 종을 9900~6만9900원에, 캐릭터 식기 40여 종은 3990~3만6900원에 각각 판매한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 'GS25' 가맹점 평균 매출 1위

▶1면서 계속

그러나 미니스톱은 도시락 흥행에 성공한 GS25의 반격이 본격화된 2016년부터 점포당 매출을 역전당한 후 줄곧 2위에 머물러 있다.

GS25의 점포당 매출 1위는 출점 전략과 더불어 카테고리 길러 메뉴의 차별화가 가장 큰 이유다. 개별 점포의 수익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 출점하며 점포 수 1위보다는 점당 수익성에 방점을 찍은 것이 바로 GS25다. 여기에 도시락과 커피 등 전략 상품의 차별화가 힘을 보탤었다. 2015년 '김혜자 도시락' 열풍으로 편의점 도시락의 대명사로 떠오른 GS25는 2017년부터는

스위스 유라사의 원두커피 머신을 도입해 커피 차별화에 나섰다. 유라 커피머신의 가격은 1대당 1300만 원대로 기존 편의점 커피 머신보다 3~4배 고가다.

실제로 GS25의 컵라면 대비 도시락 매출 비중은 2014년 35.7%에서 지난해 52.5%까지 치솟았고, 카페25 커피는 지난해에만 9200만 잔이 팔리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특허로 보호받는 '나만의 냉장고 어플'의 집객 효과도 상당하다. 이 앱은 '1+1'이나 '2+1' 행사 상품 중 중정받은 1개 상품은 바로 수령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GS리테일 관계자는 "긴 호흡으로 상품에 투자하는 한편, 반값 택배와 수수료 없는 ATM 도입 등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탐색해 내점 확대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S25가 점당 매출을 확대하는 사이 라이벌 CU는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CU는 2014년부터 5년 연속 점당 매출 3위를 기록 중이지만 매출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점당 6억 원대 매출이 무너지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가맹점 평균 매출 상승률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이마트24다. 2017년 점당 매출 3억7885만 원이었던 이마트24는 지난해 3억9613만 원으로 1년 사이 1746만 원 상승했다. 특히 이마트24의 경우 심야 미영업 점포 비중이 78%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괄목할 만한 성장세다. 심야에 문을 닫는 점포는 CU가 20%, GS25는 14% 수준이다.

## 밀레니얼 타깃... 더 젊어진 '컨디션환'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비음료 섭취해소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소비 트렌드를 겨냥해 씨제이헬스케어의 컨디션환(사진)이 다시 태어났다.

씨제이헬스케어는 11월부터 배우 박서준을 모델로 한 광고와 함께 리뉴얼한 '컨디션환'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제품 디자인은 먹기 편하도록 세로형 스틱 포장은 유지하고, 밝은 색상의 패키지에 박서준 사진을 새겨 산뜻한 느낌을 더했다. 구성도 날개 및 3개입으로 단순화해 어디서든 간편하게 챙기기 쉽도록 했다.

컨디션환에는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는 100% 국산 헛개나무 열매 농축액을 포함해 버드나무 껍질, 월계수잎, 니파야자 등



총 18가지 재료가 들어갔다. 일본산 원료는 사용하지 않았다.

새로운 컨디션환 광고는 컨디션환의 발음을 유쾌하게 재해석해 '그 어떤 숙취 상황과 완벽 호환!'이란 메시지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각인시킬 계획이다.

컨디션 관계자는 "최근 20~30대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비음료 섭취해소 상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컨디션환 리뉴얼 출시에 맞춰 박서준을 모델로 한 신규 TV 광고를 방송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젊은 소비자층을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리뉴얼된 컨디션환은 편의점, 약국, 슈퍼마켓 등에서 29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유희은 기자 euna@

# “불확실성 줄어 상승랠리… 코스피 내년 2500 간다”

## 박스탈출 주식시장

무역분쟁·한일갈등 등 해결모드 4분기 실적도 지수 영향 제한적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 이어져 하반기 정체로 '상고하저' 예상

					
	이경수 센터장(메리츠증권)	김유겸 센터장(케이프투자증권)	구용욱 센터장(미래에셋대우)	최석원 센터장(SK증권)	박희정 센터장(키움증권)
코스피 예상 밴드	2000~2500	2000~2400	제시 안함	2000~2400	2000~2250
주요 전망	최악의 시나리오 개선... 실적 영향은 큰 변수 아니다	물가 하강 사이클 마무리... 정책효과 기대	주식 비중 늘리고 기업별 실적 주목	기업 실적 회복 영향·정책 효과에 '상고하저' 증시 예상	통화 완화정책에 유동성↑... 획기적 실적 개선은 어려울듯

박스권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증시가 최근 부활 조짐을 보이면서 증권사 리서치센터들도 내년 시장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글로벌 약재들이 해결 국면에 들어선 만큼 내년 코스피지수 목표치를 최대 2500선으로 예상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30.04포인트(1.43%) 오른 2130.24로 거래를 마쳤다. 증가 기준으로 지난 6월 28일(2130.62) 이후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최근 국

내 증시가 순항하는 것은 국내외에 산재해 있던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증권 전문가들은 대부분 내년초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이경수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장은 “7~8월 3가지 외부 변수로 증시가 극심한 부진을 겪었는데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선반영된 영향”이라며 “현재는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갈등, 연준의 금리인하 불확실성이 해결모드로 바뀌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주가 지수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내년 초에 전망치들이 조정될 것”이라며 “올해 연말 코스피 예상밴드로는 2150~2200선을, 내년 예상밴드로는 2000~2500선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김유겸 케이프투자증권 센터장은 “물가는 사이클 상 아무리 늦어도 올 3분기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국면”이라며 “다만 올해 연말 쯤에는 단기적 상승 피로감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종료됐다는 인식에 따라 잠시 숨 고르는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코스피 상단은 2250선까지 가능해 보인다”며 “내년에는 2000~2400선을 형성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내년에는 주식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식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당분간 금리 인하가 자제되는 만큼 모멘텀 쪽에서 보면 채권보다는 주식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코스피 예상 밴드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내년 하반기 다시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상고하저를 예상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상반기엔 주가가 크게 상승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다소 정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중 무역분쟁 등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경기 확장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이 같은 정책 효과가 다소 적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000~2400선으로 제시했다.

박희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는 1단계 합의 이후 다소 잡음이 생기더라도 시장의 풀린 유동자금이 증시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칠 상황”이라며 “하지만 하반기에는 글로벌 교역량 증가나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 등이 획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년 코스피지수는 2000~2250선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이신철 기자 camus16@

## “내년 ‘수주 2000억’ 약속 지키겠다”

### CEO 인터뷰

#### 이세용 엔에스 대표



제품이 거래처 등에서 품질로 인정받고 오랜 기간 신뢰가 쌓인 덕분이다. 해외 수주도 크게 늘었다. 이 대표는 자사의 제품이 높은 성능에 비해

가격이 낮아 경쟁력이 높다고 자신했다. 그는 “가격 대비 경쟁력이 이제 일정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본다”며 “국내를 넘어 일본 기업과 품질을, 중국과 가격을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사업보고서에서 엔에스의 매출액이 20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을 직접 보는 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등을 완전히 입증받아야 장부에 반영하는 등 상당히 보수적으로 회계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 대표의 ‘생존 제일’ 경영철학 때

문이다. 상장 당시에도 ‘실적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적어 보이고, 매출 기록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대표가 감당 할 몫’이라고 대답했다. 이 대표가 ‘생존’을 강조하게 된 것은 과거 어려웠던 업황에 대한 경험 때문이다. 그는 과거 대형 원정에서 자사 제품 사고를 이유로 2차 전지 관련 발주를 거의 모두 끊었는데, 그때 상당수의 동종업체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또 1999년 설립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맞이했다고 회고했다.

“그때는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다. 지금이야 2차전지가 유망 산업이라고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소한 비주류 산업이었다. 그때부터 버틴 몇몇 업체만 남았다. 보수적 회계 처리는 생존을 위한 고민의 결과다.” 박기영 기자 pgy@

## 미래에셋대우, 국내 최초 美 나스닥 IPO 주관

미래에셋대우 홍콩법인이 글로벌 투자은행(IB) 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해외 금융시장에서 기업공개(IPO) 주관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미래에셋대우는 홍콩법인이 유럽 최대 바이오테크 업체인 바이오엔텍과 아시아 최대 물류 플랫폼 업체인 ESR 두 회사의 해외 IPO에 공동주관사로 선정돼 업무를 수행했다고 4일 밝혔다.

바이오엔텍(NASDAQ:BNTX)은 2008년에 설립된 독일계 생명공학 기업으로 mRNA 기반 치료제, CAR-T, 면역관문억제제, 항체, 저분자화합물 등의 항암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설립 이래 일라이 릴리(Eli Lilly), 젠맵(Genmab), 사노피(Sanofi), 바이엘(Bayer), 제넨텍(Genentech), 로체

(Roche), 제네반트(Genevant), 화이자(Pfizer) 등 우수 글로벌 제약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150편 이상의 연구 논문을 발표한 유럽 최고 수준의 바이오 업체다. 공모 규모는 약 1억5000만 달러(약 1750억 원)로 국내 증권사 중 미국 나스닥 상장에 공동주관사로 참여한 것은 미래에셋대우가 최초이다. 또한, 미래에셋대우 홍콩법인은 아시아 최대 물류 플랫폼 업체인 ESR의 공동주관사로도 선정됐다.

ESR(HKG:1821)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전역에 물류센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체로 대도시 인근에 확충한 물류 자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이커머스 업체, 유통업체, 3자 물류기업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어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충일과 다르다.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우일 말고 실리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XO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대우일과, 후속한 성장일기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대사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현업에서의 책임감에서 출발해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니 정보

물 주는 변로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자신과 구성원들의 명과 열정,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쾌리드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역경과 난관이 오히려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랑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유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원 정책, 제도적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19년 지음 / 200쪽 / 국문판권 / 214,800원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의 지식을 얻는 책 읽기 기술**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될 뿐, 깊이 있는 읽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된다.

이영호 지음 / 232쪽 / 4800원 / 215,800원

# “부채? 자본?” 코리아센터 RCPS 논란 크로바하이텍·주주연대, 신경전 팽팽

### 파생복합금융상품 원칙적 '부채' 금융위 '부채→자본' 재분류 승인 회사측 '회계당국 입장 변화 땐 부채금액 산정 가능성 존재' 명시

최근 코스닥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 코리아센터의 전환상환우선주(RCPS) 회계 처리를 놓고 논란이다. 회계기준에 따르면 시가 조정(리픽싱) 조항이 포함된 파생복합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부채로 처리해야 옳지만, 부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 허용에도 이를 승인해줬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센터는 지난 달 25일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면서 상장 일정을 3주 넘게 미뤘다. 정정내용 중에는 자본으로 처리된 RCPS 전환권 대가가 부채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포함됐다. 회사 측은 증권신고서에서 “회계당국의 입장이 변화할 경우 전환권 대가에 대해서 공정가치평가를 통해 부채금액으로 산정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문구가 삽입된 건 최근 RCPS

회계처리와 관련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은 올해 5월 상장 과정에서 코리아센터를 감리하던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감리위원이 회사가 전환권 대가를 자본으로 재분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코리아센터는 지난해 2월 260억 원 규모의 RCPS를 발행했고, 같은 해 4월 해당 RCPS 전환권 대가 77억 원을 자본 처리했다.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리픽싱 등 불확정적인 전환권리가 존재하는 RCPS 등의 금융상품은 부채로 인식한다.

이 사안은 금융위원회 회계쟁점 사안으로 올라갔고, 결국 9월 중순 금융위원회는 코리아센터의 자본 재분류가 K-IFRS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원회가 이번 결론을 내린 데 근거는 2011년 상장사협의회가 질의하고 금감원이 비공개로 답변한 ‘회제이-00094’에 있다. 당시 금감원은 “행사가격 인하 조건 대가의 경우 외부로 환급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부채요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최초 장부가액에서 사채부분을 차감한 잔액을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했다. K-IFRS에 따르면 부채지만, 비공개회신에 따르면 일정 사례에 한해서는 자본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간 RCPS 전환권을 부채 처리한 IPO 진행 비상장사들과 형평성 이슈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IPO를 앞둔 비상장회사들 중 RCPS로 인한 부채 때문에 회계상 자본잠식 위험이 발생해 상장 절차를 미루거나 포기한 기업도 많았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회제이-00094를 알고 있는 비상장사가 자본으로 처리하고자 주장하면 이를 인정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부채로 처리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제이-00094가 나올 당시 내실 있는 여러 회사들이 자본잠식으로 퇴출 위기에 처할 상황이 발생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회신이었던 만큼, 이를 원용하는 IPO 비상장사들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까지 관여할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 경영 정상화와 거래 재개 입장차 임시주총 29일로 연기

임시주총회를 앞둔 크로바하이텍의 경영진과 주주연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주주연대는 현 경영진을 불신하며 자구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측은 경영 정상화와 다른 방향을 주장하는 주주연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 정상화와 거래 재개를 두고 엇갈린 주장이 이어지면서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크로바하이텍은 4일로 예정됐던 임시주총회를 29일로 연기했다. 이번 임시주총회에서는 △이사 선임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사업목적 변경의 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특히 이번 4명의 신규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 감사 1명 등 신규 인력 투입에 대한 논의가 예정됐었다. 사측은 그동안 거래 재개를 위해 신규 투자자 유치에 절실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임시주총은 사측의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 법원은 사측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며 △임시주총 전까지 자금 투

자 논의의 △재감사 진행 △경영 정상화 방안 제출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이번 주총은 공시 위반으로 진행되지 못할 사안이었는 데, 대표이사가 직접 재판에 참석해 여러 제안을 내놓으며 연기했다”며 “이제까지 거래 재개를 주장하면서도 소액주주들의 주장을 배제하거나, 반하는 행동을 지속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해 불신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현 경영진과 소액주주 간 갈등은 △전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처리 △재감사를 앞둔 자산 정리 등을 두고 격화한 상태다. 크로바하이텍은 지난달 25일 재무상황을 위해 서울 송파구 사옥 일체를 121억 원에 매각했다. 사측은 재감사를 받기 위해 분사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소액주주 측은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고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소액주주연대가 내놓은 자구안은 신규 투자자 유치와 자체 이사진 선임이다. 앞서 17일 청주지방법원은 소액주주연대 대표 안호철 외 6인이 제기한 임시주총회 소집을 허가한 바 있다.

이정희 기자 ljh@

## “비용 절감하자” 2년 새 섬유제조 공장 세번 중단 전방, 실적·재무 개선 안간힘

섬유제조 기업 전방이 2년 새 세 번의 공장 중단을 단행했다. 실적과 재무 악화에 회사의 개선 노력도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방은 지난달 천안공장에서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천안공장에서의 거둔 매출은 293억 원으로 회사 전체 매출 대비 19.6% 규모다.

회사 측은 “비용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한 경영환경 개선의 일환”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단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경비절감에 따라 손익도 개선돼 재무 건전성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방은 2017년 10월에도 시흥과 광주 두 개의 공장의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에도 목적은 경영·재무환경 개선이었다. 이후에도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토지·건물과 시흥에 위치한 염색 가공사 제조공장을 각각 486억 원과 288억 원에 양도 또는 처분하기도 했다.

전방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공장 중단과 자산 처분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일시 감소했지만 당기순손실 규모는 여전히 크다. 올 들어서도 적자는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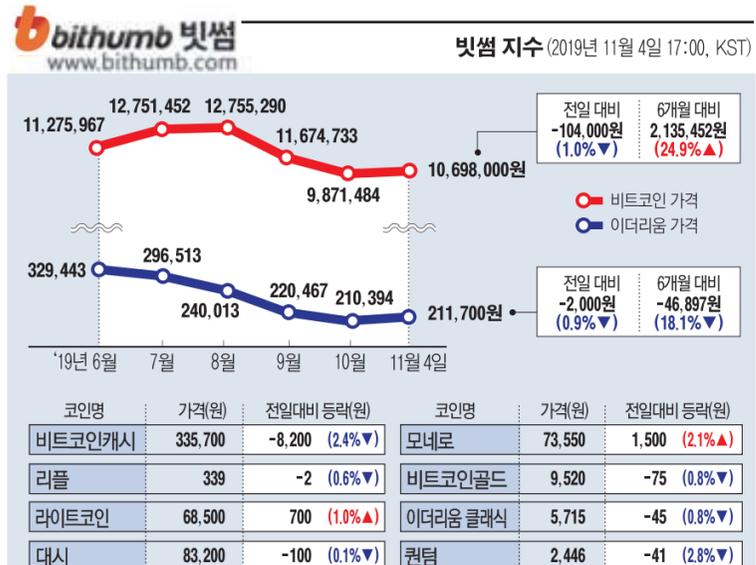
전방 실적 추이 (단위: 원, 연결 기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
매출	2008억	1825억	1493억	732억
영업이익	-125억	-181억	-87억	-126억
당기순이익	-175억	-130억	-233억	-189억

※출처: 금감원 전자공시

반기 기준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2% 감소한 732억2807만6290원, 영업손실은 14.5배 불어난 125억5226만2866원이다. 당기순손실도 189억289만3609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실적이 더 악화됐다.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 재무지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올 2분기 들어 부채비율은 233.49%, 유동비율은 28.14%를 기록하며 분기별 수치가 2000년대 들어 가장 좋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천안 공장 중단 역시 악화된 재무상태를 고려한 결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단한 두 공장의 매출 기여도는 각각 7.56%, 7.68%이었던 데 반해, 천안공장의 기여도는 19.6%에 달하는 만큼 자체적인 구조조정 수위도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방은 1953년 설립돼 1968년 상장한 기업으로, 섬유제품 제조와 중고자동차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KYOBO 70th 창립 70주년

지금 만나러 갑니다

교보증권

로보서비스 무료 이벤트, 신용공여이자율 혜택 이벤트, 해외주식 담보대출 이자율 인하 이벤트,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인하 이벤트

로보서비스 소개: 투자자의 달인, 폭포, 스톱컷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본인 인증, 주소 등 정보 입력, 신분증 촬영, 계좌 인증, 신청완료

투자자 유의사항: 교보증권은 금융투자 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광역철도 장밋빛 청사진? “총선용 공수표” 시장은 시큰둥

검단·김포 GTX-D 포함설에 솔깃 노선계획·재원대책 없어 ‘회의적’ 기존 GTX 사업속도도 크게 떨어져 “주민 달래기용 선심성 대책” 불만

“광역 교통 발표로 일부 수혜지역은 있겠지만, 10년 전에 나온 대책을 방치하고 있다. 주민 반발 많으니까 이제서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한 번 반복해 발표한 것 아닙니까.”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A공인중개소 관계자)

수도권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사업이 얼마 전 발표되면서 수혜지역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현지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차갑다. 발표 내용 자체가 알맹이가 없고 구체성도 떨어져 교통망 개선에 목마른 주민들을 위한 달래기용 공수표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 비

용은 최대 30% 절감하며, 환승시간은 30% 줄인다는 3대 목표가 제시된 ‘광역교통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 비전에는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9호선 강일~미사 구간을 연장하고 인천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포한강선은 검단신도시로 연결한다. 고양선을 일산 식사지구까지 추가 연장하거나 서울 지하철 6·9호선을 동북권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수도권 서부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규 노선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A(운정-동탄)·B(송도-마석)·C(덕정-수원) 등 3개의 노선에 이어 GTX-D노선이 신설되는 셈이다. D노선은 경기도 김포와 인천 검단을 서울과 연결하는 노선이 유력하다.

특히 최근 교통망 개선 효과 등에 힘입어 미분양 아파트가 대거 팔려나갔던 인천 검단신도시는 GTX-D 포함설이 제기되면서 반색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냉담한 반응이 이어졌다. 이번 비전에 담긴 GTX-D는 노선도의 계획조차 나오지도 않은 채 내년 하반기에 추가안을 발표한다는 계획만 덧붙여냈기 때문이다. 김포한강신도시 일대 공인중개소 측은 “그날 발표로 문의 전화는 종종 오지만 실제 김포가 포함된다고 해도 완공까지 10년은 족히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학적인 재원 마련도 문제이지만 기존의 GTX 사업도 이제 첫 삽을 뜨거나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상황이어서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만큼 “갈 길이 멀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속도가 문제라는 얘기도 나온다. 교통사업은 굵직한 단계를 넘을 때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아 사업 속도가 크게 떨어진다. 실제 GTX-A 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6년이 지난 올해 들어서야 첫 삽을 떴고, B노선도 경기도가 2009년 GTX 3개 노선안을 확정하고 이 사업을 공식 제안한 지 10년 만인 8월에야 예타를 통과했다. C노선도 6월에야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했다. 계획



조차 명확하지 않은 D노선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그나마 공사를 시작한 GTX-A가 노선 확정 14년 만인 2023년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GTX 공사 특성상 완공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본부장은 “GTX는 지하 40~50m에 건설되는 특성 때문에 완공은 예상보다 더 늦어질 것”이라며 “대형 건설 프로젝트는 발표와 착공, 완공 시점이 호재로 작용하지만 시간이 워낙 오래 걸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값 상승효과를 기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강남3구 아파트 지금 이 살 때라고?

9월 법원 경매 낙찰가율 104.6%  
분양가 상한제로 응찰자도 급증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법원 경매 낙찰가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4일 법원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3구의 아파트 법원 경매 낙찰가율은 평균 104.6%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이다. 낙찰가율이 100을 넘으면 웃돈을 주고서라도 낙찰을 받으려는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강남3구 아파트 경매 수요를 부추킨 것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다. 올해 강남3구 아파트 낙찰가율이 처음 100%를 넘긴 것은 7월(101.0%)이다. 6월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공론화한 직후다. 이후 강남3구 아파트 낙찰가율은 8월 104.4%, 9월 106.3% 등 넉 달째 100%를 웃돌고 있다.

아파트 경매가 인기를 끌면서 응찰자도 늘고 있다. 연초만 해도 평균 응찰자 수가 물건당 4.1명뿐이었지만 지난달엔 12.1명으로 늘어났다. 올 들어 가장 많은 응찰자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과감하게 1회 차 입찰에 응찰하면 단독 입찰로 낙찰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순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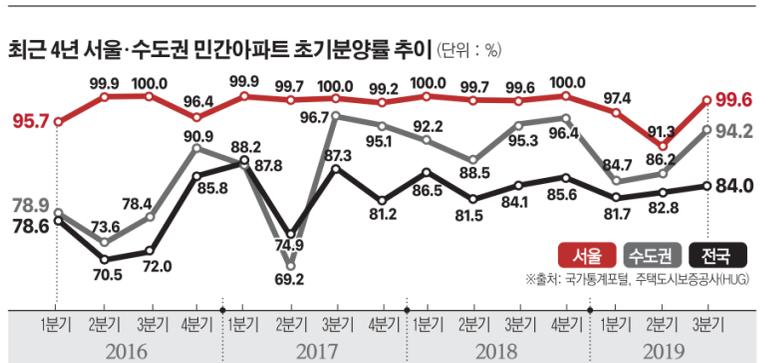
굿네이버스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행복한 세상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이들 편에 서주세요

### 아이들 편에서 놀이를 외칩다

—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분양기간 3~6개월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률〉

# 서울 ‘초기 분양률’ 99.6% 9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수도권 3분기도 94.2%로 8%P ↑  
공급 감소 우려·신축 선호 맞물려

서울의 민간아파트 초기분양률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맞물리면서 분양시장이 과열된 현상이 통계로도 나타났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의 민간아파트 초기분양률은 99.6%로 전분기(91.3%)보다 8.3%포인트 올랐다. 작년 4분기 100%를 기록한 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들어서는 1분기에 97.4%를 기록한 후 2분기에는 91.3%까지 떨어졌다.

초기분양률은 분양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인 민간아파트 분양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분양 개시일 이후 경과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사업장의 평균 분양률을 책정하는 것이다. 청약 당첨자가 이 기간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초기분양률의 수치가 오르기 때문에 청약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다.

경기·인천의 초기분양률도 2분기보다

올랐다. 경기의 3분기 초기분양률은 89.2%로 전분기(82.7%)보다 6.5%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4분기에 95.3%를 기록한 후 가장 높다. 인천의 3분기 초기분양률 역시 100%를 기록한 작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99.3%를 나타냈다.

서울·경기·인천의 초기분양률이 오르면서 수도권 전체의 초기분양률도 9개월 만에 가장 높게 책정됐다. 수도권의 3분기 초기분양률은 94.2%로 전분기(86.2%)보다 8.0%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4분기 96.4% 이후 최고치다.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4월 분양한 ‘송파 위례 리뉴얼 퍼스트클래스’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70.16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인근 시세보다 가격이 낮다는 것을 청약자들이 경험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 청약 과열 현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 초기분양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윤지혜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실수요자들이 신축으로 눈을 돌릴 정도로 청약시장은 과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 '500억 담뱃세 포탈' 檢-BAT 신경전

“담뱃값 인상 전 2463만 갑 반출”  
“소유권 이전 거래, 탈세 성립 안돼”  
재판부, 고의성 명확히 밝혀야

500억 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타바코(BAT)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조세포탈 성립 사실관계와 고의성 입증에 주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BAT코리아의 전직 대표 A 씨, 생산물류 총괄 전무 B 씨, 물류담당 이사 C 씨 등 임원 3명과 BAT코리아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으나 이날 외국인 A 씨는 불출석했다. 변호인은 “인사이드용으로 외국에서 근무하게 된 이후 한 번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출석하지 않은 상태여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저희도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기일을 연기하고 나머지 2명과 법인에 대한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

양측은 △조세법 관련 ‘반출’ 해석에 따른 법적 문제 △사기 기타 부정행위 관련 전산조작 △조세포탈 인정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을 둘러싼 서증조사를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연하카드로 감사 인사를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2020년 경자년 흰쥐의 해를 맞아 다양한 쥐의 모습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새해 우체국연하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인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행태나 범주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소유권 이전 거래 자체가 반출로 볼 수 있어 조세포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전산상 나타난 코드를 보면 실제 외부에서나 내부에서 반출이 없었지만, 화면에서는 외부로 반출되게 인식되도록 했다”며 전산조작과 이에 따른 조세포탈 범행을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성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재판

부는 “정부가 발표한 매점매석 고시에 따라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해서 반출을 금지한 것은 맞다”며 “2014년 12월 31일 시점에 (BAT 측에서) 2360만 갑 정도는 반출할 권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물량을 외부로 반출하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500억 원을 아낄 수 있었는데 굳이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변호인 측에 “조세포탈의 경우 조세채무 사실이 성립되지 않으면 기소사실이 없어진다”며 “법률상 반출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해석해서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 등 임직원들은 담뱃값 인상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담배 2463만 갑을 경남 사천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산상으로 반출한 것처럼 조작해 담배 관련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BAT의 포탈세액은 개별소비세 146억 원, 담배소비세 248억 원, 지방교육세 109억 원 등 총 503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 “고액 체납자 무조건 출국금지 부당”

법원 “납부 압박 목적 아냐”

고액 체납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에

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도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의 국세 체납액이 올해 1월 기준 7억8726만7280원에 달한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6월 A 씨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했고 같은해 12월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했다. 더불어 올해 6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출국금지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엔지니어링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게 된 것일 뿐 세금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산 및 면책 결정과 지출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지는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강제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적다”며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 항공촬영 입찰 담합 업체 11곳에 벌금형

대법, 최대 1억원 원심 확정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 촬영 용역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항공촬영 업체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촬영 업체들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11개 업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 총 37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을 나눠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뒤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장기간에 걸쳐 부당공동행위를 통해 입찰을 반복하면서 공정성을 방해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장려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며 이들 업체에 3000만~1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임원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적은 3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의 경쟁제한 정도와 비교할 때 범행으로 인한 예상가 격 대비 낙찰률 차이 등을 고려해 일부 업체들의 벌금을 500만~7000만 원 감면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짬짬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짬짬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짬짬 TV)

구독 문의 (02) 799-2680

# “대기에는 국경 없다... 튜베리처럼 행동할 때”

〈스웨덴의 10대 환경 운동가〉

## 박원순 서울시장, 기후변화 국제포럼서 특별연설

“기후 대응, 지방정부 역할 중요”  
‘동아시아맑은공기...’ 발족 계획  
내달 미세먼지 시준제 도입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기에는 국경이 없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 주요 도시와의 공조를 강조했다.

박 시장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국제포럼’ 특별연설을 통해 “서울은 파리기후협정에 기반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스웨덴의 10대 환경 운동가 그레타 튜베리를 언급하며 “이 소녀의 외침은 뿔뿔히 번져 전 세계 185개국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기후 위기에 대해 목소리를 내도록 했다”며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국가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

다”며 “빠른 속도로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고, 시민 삶과 맞닿은 실천적 도구를 갖춘 도시가 더 선도적인 기후 행동을 통해 상향된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구 면적의 2%에 불과한 도시에서 전 세계 에너지의 78%를 사용하고 막대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며 “이 수치가 시사하는 바는 ‘도시가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동북아 4개국, 10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 도시 간 협력기구 ‘동아시아맑은공기도시협력체(EACAC)’를 제대로 된 국제기구(동아시아맑은공기네트워크)로 격상시켜 회원국을 늘리고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박 시장은 기후변화 정책 기본 틀인 거버넌스 구축 등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하며 기후변화에 있어서 만큼 서울시를 가장 앞선 도시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했다.

박 시장은 “서울은 우선 국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약 87% 해당하는 에너지 부문에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며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국제포럼’에서 서울시의 대기오염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2·5기, 화력발전소 5기 분량에 달하는 518만TOE를 감축하기로 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공급에서 수요 중심으로 바꿨다”며 “서울은 이미 시민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프로슈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가 정제되기 전에 다양한 예방책을 시행하는 ‘미세먼지 시즌

제’를 12월부터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국민정책 제안을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방안을 마련했고 9월 시민대토론회에서 시민 94%가 동의했다”며 “서울시가 앞장서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오후 5시에 제공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TV에 게재됐습니다

## 강동구 내년 생활임금 인상 1만520원... 최저임금비 22% ↑

서울 강동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20원, 월 209시간 기준 219만8680원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930원(22.4%) 많은 금액이며 2019년도 생활임금 1만14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규모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의 1인당 월급여액(219만8680원)은 올해 211만9260원보다 7만9420원 많다.

생활임금은 서울에 사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임금 수준을 맞춰 주기 위해 도입했다.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비싼 서울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됐다. 강동구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 교통비, 식대, 정기수당으로 통상임금 성격 수당 일체다. 김진희 기자 jh6945@

## 동작구 비상수송차량 지원 수능일 특별교통대책 마련

동작구가 14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4일 동작구에 따르면 수능 당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교통지원대책본부 설치·운영해 교통상황을 총괄하고, 비상수송 차량을 지원한다.

먼저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구청 행정차량 3대와 각 동주민센터 행정차량 15대 등 총 18대를 동원해 수험생 비상수송에 나선다. 특히 △노량진역 △이수역 △신대방역 △장승배기역 △상도역 △사당역 등 주요 지하철역에서 인근 시험장까지 수험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다.

또 수험생 등교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대중교통에 대한 특별수송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마을버스 21개 노선, 115대가 배차 간격을 단축 운행하며, 법인택시가 지하철·버스정류소와 시험장 간을 집중 운행한다. 설경진 기자 skj78@

## 바이오 스타트업의 요람 흥릉 ‘서울바이오허브’ 완공

### 산업지원·연구지원동 이어 지역열린동 오늘 개관

서울 흥릉이 바이오 의료 산업 거점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회기동에 있는 바이오 의료 창업지원 컨트롤타워인 ‘서울바이오허브’의 마지막 건물인 지역열린동(협업·소통)이 5일 개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2017년 10월 산업지원동(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4월 연구실험동(R&D 지원)에 이어 서울바이오허브 3개 동

이 모두 완공되는 등 흥릉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 1단계 인프라가 완성됐다.

흥릉 클러스터의 핵심 시설인 서울바이오허브는 5년 이하 바이오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 바이오 의료 스타트업 67곳이 입주하며 연구개발·컨설팅·투자유치 등 전 주기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더불어 대학·병원·연구소 및 지방 클러스터 등 관계 기관

과 협력해 바이오 창업 생태계 조성의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존슨앤드존슨, 노바티스, MSD 등 글로벌 제약기업의 ‘파트너링 오피스’를 서울바이오허브에 유치해 바이오 의료 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발굴하고 컨설팅, 멘토링,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협력 모델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번에 개관하는 지역열린동은 연면적 3113㎡,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지역열린동 전경. 사진제공 서울시

△기업 입주 및 코워킹 공간 △과학도서관 △콘퍼런스홀·세미나실·휴게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960년대 경제 성장의 요람이었던 흥릉이 바이오산업 전초기지로 완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 Premium Toothpaste

# 천연유래 식물성분 처방 덴탈 스케일링 치약

### 9無 루바스천연치약

20년 한방발효과학  
100세 건강치약  
루바스가 앞장서겠습니다!

유해 성분  
9無

치은염,  
치주염 예방  
구취,치태 케어

잇몸질환 예방  
약한잇몸 케어

after 1 day your teeth feel refreshed

## LUBAS

(주)루바스 바이오 제약

無 불소

無 광물성 오일

無 동물성 원료

無 안식향산 나트륨

無 파라벤

無 침강탄산 칼슘

無 사카린 나트륨

無 SLS

無 주스 반응

www.lubaskorea.com  
구입문의 1599-0203

# ‘폭스바겐의 길’ 따라간 현대차... 성공도 실패도 ‘판박이’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 폭스바겐·현대차 평행이론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차 업계에서 대표적인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다.

설립 초기, 일본 자동차 회사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들이 추구하는 전략을 모방했다. 그렇게 쌓아 올린 기술력이 모여서 이제 글로벌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현대·기아차를 주목하며 경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후발주자로서 시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낸 덕이다.

1980년대 개척기를 거쳐 2000년대 커다란 도약을 발판으로 글로벌 5위 수준에 오른 배경에는 이런 제품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독일 폭스바겐이 존재한다. 이른바 ‘폭스바겐과 현대차의 평행이론’이다.

◇폭스바겐 TFSI와 현대차 T-GDi = 폭스바겐과 현대차 모두 주력 분야가 소형차다.

## 소형차 중심 고성능 엔진기술 직분사 엔진에 터보 없어 응용 고급차보다 출력 앞서며 호평

2000년대 초까지 폭스바겐의 최고급 차는 파사트를 정다. 현대차 쏘나타 크기의 중형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폭스바겐은 작은 엔진을 만드는 기술이 출중했다. 직렬 4기통 2.0리터 엔진을 두루 써먹는 이유도 출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의 대표적인 엔진이 직분사 방식의 2.0 FSI(Fuel Stratified Injection)다. 간접분사가 아닌 연소실에 직접분사를 통해 출력과 연비를 끌어올렸다.

폭스바겐은 이 엔진을 바탕으로 고급기인 터보를 더해 TFSI 엔진까지 개발했다. 직렬 4기통 2.0 TFSI 엔진은 소형차 ‘골프’의 고성능 버전에서 쓰였다.

최근에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출력을 더 끌어올렸다. 같은 엔진을 얹은 아우디 신형 A6 2.0 TFSI 엔진은 최고출력이 무려 252마력까지 상승했다.

현대차 역시 세타 엔진을 바탕으로 직분사 방식인 세타2 GDi 엔진을 개발했다. 역



◀ 현대차 2.0 T-GDi  
(위)벨로스터, (아래) 에쿠스

▶ 폭스바겐 TFSI 엔진  
(위)시로코, (아래) 페이톤

시 폭스바겐과 마찬가지로 과급기인 터보를 더해 T-GDi까지 내놨다. 북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현대차 쏘나타와 기아차 K5에 얹어 호평을 받았다. 현대차의 고성능 모델 벨로스터 N의 엔진 역시 2.0 T-GDi다. 최고출력은 아우디를 크게 앞선 275마력에 달한다.

◇폭스바겐 DSG 겨냥한 현대차 DCT = 변속기 개발 및 방식도 유사하다.

2000년대 중반, 폭스바겐은 다판식 클러치 방식의 변속기 DSG를 개발해 선보였다. 뜯어보면 수동변속기에 가깝다. 제작원가는 수동변속기와 자동변속기의 중간쯤에 자리한다. 기능은 자동변속기와 다를 바 없지만, 출력 손실이 없고 직결감이 뛰어난 게 특징이다. 그만큼 수동변속기 수준의 연비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폭스바겐의 DSG를 보고서 화들짝 놀란 현대차 역시 같은 메커니즘을 담은 변속기 DCT를 개발했다.

## 폭스바겐 DSG 변속기 출시에 자극받은 현대차도 DCT 개발 초기 고급차 전략은 모두 실패

◇폭스바겐 시로코와 현대차 벨로스터 = 두 회사를 상징하는 아이코닉 모델도 유사하다.

시로코는 역사적으로 폭스바겐의 고성능과 스포티를 상징해 왔다. 소형 해치백의 교과서로 불리는 골프 플랫폼을 바탕으로 개발한 2도어 타입의 스포티 쿠페다. 차 너비를 마음껏 키우고 높이는 낮췄다. 여기에 2.0 터보 엔진은 물론 고성능 V6 엔진까지 얹을 수 있다.

시로코에서 영감을 얻은 현대차도 고성능과 스포티 이미지를 담아 상징적 모델을 내놨다. 기본 플랫폼은 준중형차인 아반떼

의 것을 이용하되 스타일과 서스펜션 등을 모조리 바꾼 벨로스터다. 출시 당시 좌우 1+2도어 구성이 큰 화제를 일으켰던 차다. 벨로스터 역시 2세대로 거듭나면서 본격적인 고성능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2.0 T-GDi 엔진을 얹고 폭스바겐 시로코처럼 고성능 반열에 올라섰다.

◇폭스바겐 페이톤과 현대차 에쿠스 = 초기 고급차 전략에는 실패했다.

폭스바겐은 2000년대 중반, 페이톤을 앞세워 본격적으로 고급차 시장에 진출했다. 생산도 독일 드레스덴에 자리한 투명 유리 공장에서 했다. 이 공장은 결면이 유리로 된, 웬만한 호텔 로비 수준의 정갈함을 자랑하는 폭스바겐의 자랑거리 공장이다. 이곳에서 초호화 세단 벤틀리와 폭스바겐 페이톤이 혼류 생산됐다.

그러나 북미시장에서 결과는 참패였다. 폭스바겐 그룹 내에 아우디와 벤틀리가 존재하지만, 폭스바겐 브랜드를 바탕으로 최

고급 세단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게 실패의 원인이었다. 품질은 뛰어났으나 대중차 브랜드 폭스바겐이 내놓은 최고급 대형 세단이 어색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역시 2세대 에쿠스를 앞세워 미국에 진출하면서 폭스바겐의 전략을 참고했다. 고급 브랜드가 아닌, 현대차 이름으로 차를 내놓았는데 폭스바겐의 전략을 참고한 경우다.

결과는 폭스바겐과 마찬가지로 참패였다. 일반 대중차 브랜드 현대차가 내놓은 최고급 세단에 대해 시장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결국, 에쿠스의 실패는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출범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에쿠스의 미국 진출은 현대차가 폭스바겐을 따라 하다 겪게 된 대표적인 실패 케이스다. 폭스바겐과 현대차의 평행이론은 실패 사례까지 똑 닮아 있는 셈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 몸집 불린 폭스바겐, 먹거리 늘린 현대차... M&A 전략은 정반대

## 자동차 세계 1위 목표... 아우디 시작으로 車브랜드 사들여 현대차는 그룹 재건 위해 제철·건설 등 非자동차 분야 투자

2002년 폭스바겐그룹 ‘마틴 빈터콘’ 회장은 ‘글로벌 1위’ 전략을 밝혔다.

9000만 대 규모의 글로벌 차 시장에서 연간 100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일본 토요타는 물론 미국 GM까지 제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질세라 토요타와 GM 역시 대대적인 몸집 부풀리기에 나섰다. 토요타는 경영난에 빠진 자국 자동차 브랜드를 하나둘 인수하기 시작했다. GM 역시 ‘쉐보레’ 브랜드를 앞세워 폭스바겐의 안방인 유럽을 겨냥한 역공을 노렸다. 일찌감치

손에 넣었던 한국지엠(당시 GM대우)의 군산공장을 활용하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1990년대 대우자동차가 유럽 곳곳에 심어놓은 판매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본격적인 양적 성장을 추진하던 때였다.

이들과 맞선 폭스바겐은 이미 1960년대부터 인수합병(M&A)을 통해 꾸준히 몸집을 키웠다. 1964년 고급차 브랜드 ‘아우디’를 인수한 이후, 1986년 동유럽 저가 소형차 ‘세아트’를 손에 넣었다.



1994년에는 체코 소형차 브랜드 ‘스코다’까지 거머쥐었다.

돈이 차고 넘쳤던 폭스바겐은 1998년

에 초호화 브랜드 3곳을 동시에 인수하며 야심을 내보냈다. 대표적인 회사가 롤스로이스와 쌍벽을 이뤘던 초호화 브랜드 벤틀리, 슈퍼카 브랜드 부가티와 람보르기니 등이었다.

이후에도 폭스바겐의 인수합병 전략은 꾸준히 ‘모터 컴퍼니’에 쏠렸다. 그 범위도 모터사이클부터 대형 상용차까지 확대했다. 폭스바겐은 2008년에 스웨덴 트럭 브랜드 스카니아도 인수했다.

효과를 톡톡히 봤던 폭스바겐은 2011년에는 마친내 만(MAN) 트럭을, 이듬해 2012년에는 이탈리아 모터사이클 브랜드 ‘두카티’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폭스바겐은 M&A 때마다 ‘엔진 이 달린 탈 것’에 집중했다.

반면 현대차의 인수합병 전략은 폭스바겐의 그것과 정반대였다.

1999년 기아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현대차는 단 한 번도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 양적 성장을 추진하되 M&A 대신 오히려 현대차와 기아차 두 브랜드만 앞세워 생산설비를 확대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대기아차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출범하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800cc 경차(기아차 모닝)부터 5000cc 대형 세단(현대차 에쿠스)을 만드는 유일한 자동차 회사였다.

그 사이 현대차의 M&A는 현대제철과 현대건설 등 비(非)자동차 분야에 집중됐다. 애스턴마틴과 볼보 등이 새 주인을 찾을 때도 현대차는 꾸준히 후보군에 올랐지만 단 한 번도 곳을 열지 않았다.

사실상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이 일궈낸 ‘현대그룹’의 재건에 매달린 셈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주최. 사)라벨라오페라단 | 주관. 주)쏘아베 | 문의. 02 572 6773 | 예매. 예술의전당 02 580 1300 INTERPARK 1544 1555

2019 라벨라 그랜드 오페라

도니제티 오페라 마리아 스투아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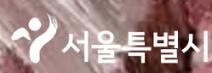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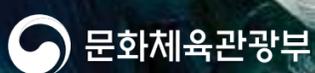
# MARIA STUARDA

*G. Donizetti*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2019. 11. 22 금요일 - 24 일요일. 3일 4회 공연



# La Bella Opera



한국투자 증권



‘조선’ 강훈식 의원이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가시스템 빈 곳 채우는 실력이 본질”

높고 힘센 존재? 지금은 아나 ‘균형발전’ 예산 편성 노력 스쿨존 사망사고 3년 이상 징역 ‘민식이법’ 이번 회기 꼭 처리



“국회의원이 예전에는 높고 힘센 존재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내 세대교체의 기대주이자 차세대 정치리더로 꼽히는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출·사진)은 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대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일하는 국회’를 위해 누구보다 ‘민생’에 집중하며 지역구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국회의원으로 있다. 강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자”고 정치인들이 말하지만 실제로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한 발자국 나아가는 데는 ‘실력’의 문제라면서 “국가 시스템의 빈 곳을 채우는 게 국회의원 역할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6년 국회 입성 후 3년간 쉽 없이 당 안팎에서 달려온 그는 누구보다 굼직한 의정활동을 했다. 당내에서 네 번째로 젊은 조선 의원이지만 당 원내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직까지 중책을 연이어 맡았다. 또 강 의원은 국토위원회 위원이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서 ‘균형 발전’을 중점과제로 삼고 ‘함께 사는 세상’을 고민했다.

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소회에 대해 “4년 차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3년 차 정책 전반에 대해 중간 점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질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 불이행과 공공기관장 기강해이 등을 문제 삼았다”며 “특히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미반영 문제는 문 대통령이 정책 실행 의지를 보였음에도 국토부 산하에서 하지 않고 있어 이를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국가 예산 편성 원칙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지 예산’처럼 국가 예산이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그 결과를 예

산 편성에 반영토록 하는 ‘균형발전인지’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요구한 것이다. 그는 “어떤 지방도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예산을 편성하지는 취지”라고 말했다.

‘발로 뛰는’ 국회의원으로 ‘조선 호랑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강 의원은 민생법 안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 그는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그는 “스쿨존 어린이 보호 구역이 눈에 잘 띄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속카메라와 횡단보도, 방지턱이 설치된 경우는 5%가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이다. 문제는 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4100여 건의 사고가 일어나고 60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런 심각한 사태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아이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주자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부연했다.

‘민식이법’은 민주당 정책위 중점법안으로 지정됐다.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이 20대 남은 국회 임기 동안 꼭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강 의원은 내년 총선을 위한 민주당 총선 기획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총선 기획단은 젊은 층을 대변하기 위한 ‘공정성’을 표명하고 있다.

강 의원은 “조선의원으로선 봤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미래 있는 21대 국회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면서 “총선 승리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는 각오로 총선기획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honey@

종근당고촌재단 ‘고촌상’에 케냐 NGO ‘KELIN’



종근당고촌재단은 지난달 31일 인도 하이데라바드 트라이덴트호텔에서 제14회 고촌상 시상식을 열었다. 김두현 종근당고촌재단 이사장과 올해 수상단체 KELIN의 알렌 아체사 말리 세 대표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종근당

결핵 환자 인권보호 공로

종근당고촌재단은 케냐의 비정부단체(NGO) ‘HIV/에이즈 관련 케냐 법·윤리 이슈 네트워크(KELIN·Kenya Legal & Ethical Issues Network on HIV and AIDS)’가 제14회 고촌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HIV/에이즈 관련 케냐 법·윤리 이슈 네트워크는 결핵약을 복용하지 않은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결핵 환자의 감옥 내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에 관련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함으로써 감염자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주변국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선

례를 남겼다. 또한 케냐 내 결핵 퇴치를 위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보건 관계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결핵환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두현 종근당고촌재단 이사장은 “올해는 결핵퇴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종근당 창업주 이종근 회장의 탄생 100주년 되는 해”라며 “수상자들이 이 회장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앞으로 결핵 환자의 인권보호와 인식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 한국사무소 대표에 류지연 씨



세계은행(WB)그룹 소속 국제금융공사(IFC)는 IFC 한국사무소 신입 대표로 류지연 대표를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류 대표는 2007년 세계은행그룹에 입사한 이후 13년간 워싱턴, 파리, 나이로비에서 근무하며 IFC의 인프라 자문, 개발도상국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최근 4년간은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취약·분쟁국가’ 부서에서 고위 운영책임자로 근무하며 지식, 포트폴리오, 분쟁 민감성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세계은행그룹 입사 전에는 여러 다국적 기업에서 동아시아 지역 담당자로 근무

했다. 앞서선 동국대에서 정치외교학 학사,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비백파식 IFC 동아시 아태평양 담당 대표는 “인프라에 대한 수요와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역사가 점차 증대되면서, 민간 분야에서 솔루션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할 것”이라며 “한국은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산업부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무역위원회 위원장(비상임)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장 선임 위원장은 2012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는 상소기구 상임 재판관이 돼 2016년까지 활동했고 2018년 6월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963년 서울 출생으로 1985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장 위원장은 1994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5년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해외 우수 로스쿨에서 무역구제법 강의를 해온 국제통상법 권위자이다. 장 위원장은 무역위원회 제14대 위원장으로 2022년 11월까지 임기 3년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예탁결제원 공익대표 비상임이사 정현석 변호사·최문희 교수 선임



한국예탁결제원은 2019년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현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왼쪽 사진)와 최문희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오른쪽)를 선임 비상임이사(공익대표)로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선임 정현석 이사는 1972년 전남 광양 출신으로, 순천고와 고려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33기로 법조계에 입문해 현재까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등을 거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심의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선임 최문희 이사는 1968년 대구 출신으로, 원화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법학대학원(박사)을 졸업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위원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본위원을 거쳐 한국상사법학회·증권법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임기는 올해 11월 5일부터 2022년 11월 4일까지 3년간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인사

- ◆서민금융진흥원 ◇전보 △춘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안재현
◆대신금융그룹 ◇대신에프앤아이△주성근 대표이사 선임
◆매일일보 △금융증권부장 조준영

두산,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1억6800만원 전달

임직원 기부·회사 지원금 조성...15개 시설 350명 후원



두산 임직원들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복지시설 해심원 관계자들이 2일 해심원에서 열린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두산

두산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동 양육 시설 해심원에서 임직원들이 모은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1억6800만 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후원금은 두산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의 일부를 모아 조성한 기부금에 회사 후원금을 더한 것으로, 전국 15개 아동 양육시설 거주 아동과 청소년 350여 명의 자립지원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두산은 지난해부터 한국사회복지협

의회와 함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아동 양육시설을 떠난 후에도 디딤씨앗통장을 활용한 금전적 지원과 더불어 임직원 멘토링을 통한 정서적 지원을 해왔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디딤씨앗통장은 후원자가 저소득층 아동 통장에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에서 1대 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 4만 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준다. 이를 통해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김기송 기자 kissong@

국토부, 125년 철도역사 집대성 ‘신한국철도사’ 발간

125년 한국 철도 역사를 집대성한 ‘신(新)한국철도사’가 발간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과 함께 한국철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철도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신한국철도사(총 7권)를 11월 중 발간한다. 신한국철도사는 약 2년간 학계와 산업계,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자문 및 집필에 참여했으며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

해 학술적인 검증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집필했다.

신한국철도사는 총 7권으로 총론 1권, 각론 3권(정책, 운영, 기술), 사진으로 보는 신한국철도사 1권, 그리고 알기 쉬운 신한국철도사 국문판 및 영문판 각 1권으로 구성됐다. 총론은 1876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대를 시기별로 1부 철도의 창설과 일본의 독점, 2부 철도의 확장과 대륙

간선의 역할, 3부 철도의 피폐와 재건, 4부 철도의 개량과 도시철도의 확충, 5부 철도구조개혁과 고속철도의 정착으로 나눠 서술하고 있다.

신한국철도사는 국공립도서관과 철도교육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전자책으로도 제작해 한국철도협회 누리집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부음

- ▲최중례 씨 별세, 김재중(저축은행중앙회 감사) 씨 모친상 = 4일,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6일, 02-3410-3151
▲함정원 씨 별세, 심완구(제12~13대 국회의원) 씨 부인상 = 4일,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 30분, 02-2227-7591
▲한영옥 씨 별세, 한동훈(부산지검 동부지청 과장)·동석(KB손해보험 경인강

- 원본부장)·동호·동선 씨 부친상 = 3일,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5일 오전 9시 30분, 055-795-0999
▲전정구(제8·10대 국회의원) 씨 별세, 강대성 씨 남편상, 전용석(전정형외과 원장)·윤진(미국 변호사)·연옥 씨 부친상 = 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02-3410-6920
▲이혁규 씨 별세, 이태학(밀레 부사장)·장학·문학·주병 씨 부친상 = 3일, 경기 남양주장례식장 5호실, 발인 5일 오전 9

- 시, 031-528-4444
▲김규영 씨 별세, 이철규(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씨 장모상 = 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5일 오전 9시 20분, 02-3010-2000
▲이동훈 씨 별세, 이윤실(서울경제신문 교열팀장·한국어문기자협회장)·소영 씨 부친상, 이동화(전 서울신문 사장) 씨 형님상, 김용석(넥스팜코리아 부장) 씨 장인상 = 3일,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5일 오전 5시 30분, 02-923 4442

추창근 칼럼



논설실장

문재인 정부 반환점, 어떤 정권으로 기억될 건가

문재인 정부 임기반환점(11월 9일)이다. 지난 2년 반을 “벌써”라고 하는 사람들, 그만큼의 남은 시간에 대해 “아직도”라고 말하는 이들이 엇갈린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는 레임덕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5년 단임 정권의 숙명이다. 취임 초 80%를 웃돈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대다. ‘잘한다’는 평가보다 ‘잘못하고 있다’가 많은 데드 크로스(dead-cross)를 넘은 지도 한참 됐다.

2017년 5월 10일 문 대통령 취임사의 울림은 컸다. 전임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목마른 공정의 가치를 세우겠다는 약속 때문이었다. 취임 일성은 “나라다운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였다. 문 대통령은 “차별없는 세상,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상식이 이득 보는 세상”을 말했다. 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2년 반 적폐정산에 매달렸다. 정권의 가치가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가? 약속은 얼마나 실천됐고, 과거 정권 때보다 무엇이 어떻게 좋아졌는가? 많은 사람들의 좌절과 실망이 넘친다. 소리 높여 외친 공정과 정의의 원칙, 그 상식이 지켜질 것이라던 당연한 기대는 허망했다. ‘조국 사태’가 똑똑히 실감하게 해주었음에 더 무슨 말이 필요하냐.

문제는 역시 경제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일자리 정부’와 비정규직 제0(0)를 선언했다. 소득주도성장을 간판으로 삼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이념으로 시장을 제어하겠다는 방향부터 잘못됐다. 임금 올려 경제를 키우고, 분배와 복지로 성장한다는 설치는 꿈이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마차가 말을 끌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0여 년 축적되고 실증된 경제학의 보편적 원론(原論)을 부정하는 엉터리라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옳은 길이라면, 포퓰리즘으로 나라 말아먹은 베네수엘라가 선진국이 돼야 했고 가난한 나라는 없어야 한다.

성적표는 참담하다. 매년 30만~40만 명씩 늘던 취업자가 작년 10만 명 아래로

줄었다. 올해 숫자로 늘지만, 세금 쏟아부어 억지로 만든 노인들의 알바성 일자리만 급증했다. 9월 고용통계에서 양질의 제조업 취업자가 18개월째 줄었다. 경제활동의 허리인 30~40대 근로자도 24개월 연속 감소했다. 결과는 정부 의지와 거꾸로 간 비정규직의 유례없는 폭증(暴增)이다. 8월에 비정규직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6만7000명 늘고, 정규직은 35만3000명 줄었다. 정부는 통계 기준 변경 때문이라지만 핑계다. 분명한 사실은 민간기업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고용의 질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재정으로 단기 일자리 만들기에만 급급해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악순환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일자리와 자영업 붕괴를 불러오고, 소득분배 악화로 빈부 격차는 더 벌어졌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11개월째 줄었다. 투자와 생산, 소비 또한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1%대 추락이 불가피하다. 과거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말고 가

장 낮다. 대외 변수 탓만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마이너스 물가까지 겹쳐, 최악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마저 높아진다.

부동산 시장도 엉망이다. 정부가 “투기로 돈 버는 사람 없도록 하겠다”며 쏟아낸 부동산 대책만 십여 차례이고, 셀 수 없는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 반(反)시장의 강도 높은 민간아파트 분양상한제까지 되살렸다. 지금 집값이 잡혔고, 내집 마련이 조금이라도 쉬워졌는가? 전방위 폭격을 퍼부었는데 지난 2년 서울 강남 집값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정말 투기 때문인지 의문이다. 뭐가 문제인지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

다른 것 다 잘해도, 경제가 망가지고 국민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지면 모든 것의 실패로 귀결된다. 우리 모두 성공한 정권을 열망한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무엇을 보는지 알기 어렵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고 경제의 상식을 되찾아야 하는 길은 뻐한데, 마주한 현실을 외면하고 감추면서 거꾸로 간다. 국민 불안만 커진다. kunny56@

다른 것 다 잘해도, 경제가 망가지고 국민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지면 모든 것의 실패로 귀결된다. 우리 모두 성공한 정권을 열망한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무엇을 보는지 알기 어렵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고 경제의 상식을 되찾아야 하는 길은 뻐한데, 마주한 현실을 외면하고 감추면서 거꾸로 간다.

정책발언대

황정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지친 몸과 맘을 위로하는 ‘치유농업’

있다. 유럽에서는 농업 힐링, 녹색치유농업, 사회적 농업, 건강을 위한 농업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1100개의 치유농장을 중심으로 국민이 치유농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 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 정부가 유기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치유농업의 본질은 치유라는 가치를 농업을 통해 제공한다는 데 있다. 그럼 농업의 어떤 점이 치유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손가락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같은 도구로 반복되는 연습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우리의 뇌는 금세 흥미를 잃고 만다. 그러나 식물을 옮기거나 심는 작업을 하게 된다면, 또 같은 식물이라도 모양이나 크기, 색이 조금씩 다르다면 인간은 집중력을 발휘해 작업을 지속할 수 있다. 특히, 녹색 식물은 적은 양이라도 인간의 몰입도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식물을 기르는 동안 우리는 그 식물에 대해 애착과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식물의 성장을 기다려주고, 나날이 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 나아가 자연의 순환 체계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몇 해 전 농촌진흥청은 식물을 기르며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초·중·고 암 환자와 학교에 적용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암 환자의 경우 우울감이 45% 줄었고 스트레스는 34% 줄었다. 아울러,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물을 기르는 활동에서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자녀의 자존감과 정서적 표현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최근 연구는 더 흥미롭다. 전북 순창에서 생활 습관성 질환 대상자를 대상으로 모종 심기, 꽃·채소 가꾸기, 콩 수확하기 등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은 28.1% 줄어들었고 허리 둘레는 평균 2cm 감소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인슐린 분비 기능을 보여주는 지표 또한 47.4% 증가하였다. 이 연구는 치유농업의 효과가 심리적인 것을 넘어 신체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367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살 뿐 아니라, 당뇨와 고혈압 같은 생활 습관성 질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치유농업 가치 확산에 힘이 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식물 치유 효과 발현 원리를 검증하는 등 추가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나이와 직업,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생산 수단을 넘어 체험과 관광, 그리고 건강 증진 수단으로서 우리 곁에 와 있는 농업. 치유농업으로 국민 행복지수, 그리고 건강지수도 상승곡선을 그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블라디미르 호로비츠 명인 “하루 연습을 안 하면 자신이 알고 이를 연습을 안 하면 아내가 알고 시를 연습을 안 하면 온 세상이 안다.”

우크라이나 태생의 ‘마지막 낭만주의자’로 불린 미국 피아니스트. 리스트·차이콥스키·라흐마니노프의 곡 해석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세계 대부분의 피아니스트들로부터 무한한 찬사와 존경을 받으며,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을 누린 피아니스트로 19세기에 프란츠 리스트, 그리고 20세기에는 그를 쫓는다. 오늘날 그는 세상을 떠났다. 1903~1989.

☆ 고사성어 / 미봉책(彌縫策) 원래는 옷감의 터진 부분을 깎고 꿰매는 방책을 말한다. 춘추시대 정(鄭)나라 장공(莊公)이 주(周)나라 환왕(桓王)과 싸울 때 전차를 앞세우고 보병을 뒤따르게 포진했으나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사람으로 전차 사이사이를 이어 고기그물처럼 진을 친 것. 전차가 험준조각이라면 사람은 실이 된 셈. 본래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금도 빈틈없는 전투포석이었으나, 임시변통의 입막음용 괴라는 뜻으로 변질됐다. 원전은 춘추좌사전(春秋左氏傳) 환왕조(桓王條).

☆ 시사상식 / 스미싱(SMishing) 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 기법이다. 휴대폰 사용자에게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트로이마를 주입해 휴대폰을 통제하며 개인정보를 빼내간다.

☆ 유머 / 보험 컴플레인 사고로 남편을 잃은 부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타러 갔다. “유감스럽게도 남편께서는 생명보험이 아닌 화재보험만 드셨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직원이 얘기하자 부인이 언성을 높였다. “알아요. 남편을 지금 화장하고 왔단 말이에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저수첩

김벼리 산업부/kimstar1215@



ESS 화재 둘러싼 ‘도시괴담’

도시괴담이 있다. 여느 도시괴담들이 그렇듯, 이런 루머들은 불확실성만을 높일 뿐이다. 더구나 화재라는 위험한 재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런 낭설들은 대중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한다. 도시괴담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다. 사실을 확인하면 된다. 멈출 줄 모르는 ESS 화재에 대해서도 명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과학수사의 핵심 전력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이렇다 할 확답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타버린다. 형체가 없어져 버린 증거물에서 화재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답답했던 정부도 직접 나섰다. 이번에는 유사실험이다. 배터리 전문가들을 불러모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번엔 변수들이 문제였다. 최대한 화재 당시의 상황에 맞춘다고 했지만, 모든 변수를 고려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첫 ESS 화재가 발생한 지 2년도 넘었다. 이러다가는 정말 끝까지 원인 규명을 못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야말로 괴담이 생명력을 얻기 딱 좋은 환경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ESS에 대한 루머는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퍼져나갈 것이다. 하지만 신산업에 루머에 물어버릴 순 없는 노릇이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원인을 찾아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하다 하다 이젠 이런 루머까지 들린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가 보험금을 노린 태양광발전소 운영업자들의 자작극이라는 소문이다. 태양광발전은 미래 유망사업인 만큼, 정부가 여러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목돈이 있는 퇴직자들은 이를 믿고 투자를 감행한다. 하지만 막상 시설을 지어보니 수익성은 저조하기만 하다. 운영비를 보전하기도 쉽지 않은 영세 발전소들이 수도룩하다. “에라, 돈도 안 되는 것 불이나 질러서 보험금이나 타 먹자”며 헛간에 불을 지른 것이 최근 잇따른 ESS 화재의 원인이라는 괴담이다. 이런 루머의 근간에는 ESS와, 더 나아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반 대중의 막연하고도 과열된 관심과 투자심리가

# 허술한 어린이집 결핵 관리

아이를 키우는 일은 언제나 힘들다. 그런데 최근 그렇지 않아도 바쁜 아침 시간에 아이와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다. 바로 약을 먹이는 일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결핵약을 먹고 있다. 공복에 먹어야 한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먹어야 하니 아침엔 초를 닦아준다. 게다가 결핵약은 일반 약과 다르다. 영유아를 위한 약들은 대부분 시럽 형태다. 하지만 결핵약은 가루다. 시럽 형태의 약 자체가 없어서다. 당연히 아이는 먹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아침부터 진을 빼고 우리 부부는 출근 준비를 한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결핵 환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약을 먹고 있다. 총 3개월 동안 먹어야만 하는 상황. 그 배경은 허탈하다.

지난달 어린이집에서 급한 전화가 왔다. 어린이집 0세반 보조 선생님이 결핵 환자로 판별이 났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가 바로 0세반에 속해 있다. (참고로 우리 아이는 오늘 정확히 18개월을 맞았다) 0세반은 총 6명이다. 어린이집 원장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설명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였다.

부라 부라 휴가를 내고 참석을 했다. 어린이집 부모 약 60여 명이 모두 모였다. 이날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했다. 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선생님은 1:2차 검사에서 결핵 음성 판정이 나와 채용을 했다. 그런데 3차 검사(배양)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한다. 배양 검사는 최소 2주에

## 데스크칼럼

### 최영희 증기부장



서 길게는 8주까지 걸린다고 한다. 1:2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기에 채용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나머지 마찬가지로. 하지만 어쩌겠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걸. 시골벽적 성토의 장이 벌어진 뒤, 0세반 부모들은 별도의 상담을 받았다. 상담 결과는 정말 기가 막혔다. 24개월 미만 아이들은 결핵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도 3개월간 해당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서둘러 모든 선생님들과 원생들이 엑스레이 검사를 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선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지나 0세반 아이들은 별도로 인근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기가 막힌 일은 이날 또 일어났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

"며칠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찍었다. 엑스레이가 좋지도 않은데 왜 또 찍느냐"고 물으니 돌아온 답이 가관이다. "질병관리본부를 믿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에서 질병관리본부를 믿을 수 없으니 대체 이게 무슨 시스템인가. 하지만 어쩌겠나. 결국 또다시 엑스레이를 찍고, 2차 검사까지 받았다. 결과는 다행스럽게도 6명 모두 음성이었다.

안도의 한숨도 잠시, 매일 아침 아내와 나는 전쟁을 치른다. 앞서도 말했듯 약을 먹이는 게 만만치 않아서다. 맞벌이 부부 인자라 그렇지 않아도 바쁜 아침 시간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소변을 보면 색깔이 빨갛다. 약 때문이다. 이런 전쟁을 앞으로 2개월 이상 더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의 결핵 소동은 1년에 50여 건에 이른다 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양성 판정이 난 경우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허술한 시스템으로 고생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생각해 보라. 이래선 곤란하다. 결핵 3차 검사까지 완료한 이들과 어린이집 선생님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만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을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2만4408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973명(10.9%) 감소했다.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각종 출산 지원금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원금보다 시스템의 개선이 더 시급하다.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안심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che@

## 시설

# '성장 절벽' 경고하는 잠재성장률 추락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잠재성장률이 가장 급격하게 떨어진 곳으로 나타났다. OECD가 발표한 국가별 잠재성장률 추계에서 한국은 올해 2.7%로, 2년 전 조사(3.1%) 때보다 0.4%포인트(P)나 낮아졌다. 36개 회원국 평균은 0.01%P 하락이었고, 미국과 프랑스 등 18개국은 올랐다. 한국보다 낙폭이 더 큰 곳은 정정(政靑) 불안으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터키와 아일랜드 두 나라뿐이다.

잠재성장률은 추가적인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그 나라 중·장기 성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 기초체력의 잣대다. 이 수치의 추락은 성장에 대한 기대치와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만 해도 잠재성장률이 7.5%였다. 2000년대 초·중반 4~5%대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3%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 추계에서는 2001~2005년 5.0~5.2%,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0~3.4%로 낮아진다, 2019~2020년 2.5~2.6%까지 내려왔다. 하락세가 매우 빠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0~2024년 1.2%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내리막을 걷는 가장 큰 원인은 노동과 자본 투입

의 감소 추세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탓이다. 노동인구 감소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내수가 쪼그라드는 데다, 주력산업이 성숙화하면서 자본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게다가 각종 규제와 지지부진한 구조개혁 등이 생산요소의 추가 투입을 막고 있다.

노동과 자본 투입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이고,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그것이다. 하지만 지금 경제시스템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편향 정책기조로 경제 활력을 살리는 길과 거꾸로 가고 있다.

잠재성장률 추락은 중장기적인 '성장 절벽'에 대한 경고다. 성장이 멈추면 기업과 국민의 소득이 늘지 않고 일자리도 없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바닥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이 한국 경제가 직면한 진짜 위기다. 경제체질을 혁신하는 구조개혁 없이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렵다. 투자 중심의 성장전략 재검토, 새로운 미래산업의 집중적인 육성, 경쟁력 있는 산업의 구조조정, 신기술 개발 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동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그 전제는 한국 경제 경쟁력의 최대 걸림돌인 규제 혁파와, 후진적 노동시장 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 설경진의 시정 24시



사회경제부 차장

# 꿈과 사랑 가득한 '금수저'만의 집?

을 잘 모르는 듯하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박 시장의 말대로라면 얼마나 좋은 지원인가. 가족이 사랑하고 꿈꾸며 살 수 있게 서울시가 나선다는데.

이번 논란은 서울시가 신혼부부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지만 임차보증금 지원 정책에서 신혼부부의 '자산 규모'를 따지는 기준이 없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받지 못할 수 있고 심지어 중산층 부모를 둔 금액 소득자 '금수저' 청년 세대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오면서다.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늘리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정책적 완결성이 부족해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느슨한 기준은 대출을 부추겨 전세가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득이 충분한 신혼부부 세대가 서울시가 지원하는 저리 전월세 대출을 저리 전월세 대출을 지렛대 삼아 강남이나 목동과 같은 고액 전세 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서다.

전세 자금 마련이 쉬워지면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지난 10여 년 전 전셋값 상승

시대에 경험한 사례다. 더욱이 정부가 사회 초년생에게 연간 최저 1.2% 금리로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도 갭 투자에 활용돼 전세가 상승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소득은 낮지만 자산이 많은 일명 '금수저'까지 이 제도에 편승할 경우 이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애초 제도 취지가 목돈이 없어 전월세 비용 마련과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돕겠다는 것인데 금수저 대출은 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제도상 '맹점'이다.

시장은 늘 정책의 선한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국토부가 자산 기준을 둔 것도 제도를 악용하는 '금수저 대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거 정책은 '단기간 성과주의'가 아닌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시장 임기 동안 운영되고 시장이 물러나면 곧바로 폐기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닌 표포리즘일 뿐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시민들의 몫이 된다.

skj78@



## 합병증 줄이는 위암 수술

조기 위암은 대부분 내시경 절제술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내시경적 점막하층 절제술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복강경 위절제술이나 로봇수술을 시행한다. 복강경 위절제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적고, 절개 부위가 작아 미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로봇수술은 복강경 수술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숙련된 집도의 한 명이 카메라 위치와 수술 기구를 조정하며 수술할 수 있어 보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좁은 공간에서 360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 팔을 이용, 흔들리거나 떨리지 않고 정밀하게 움직여서 암이 있는 부분을 절제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다.

위암의 수술 원칙은 위암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암을 포함하여 위를 잘라내야 하며 전이의 가능성이 있는 주위 림프절도 모두 절제하는 것이다. 특히 림프절은 혈관을 따라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혈관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심장

병, 폐질환 등을 동반하는 고령 환자는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전후에 관련 과들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수술 후에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크게 체중 감소, 덤핑증후군, 빈혈 세 가지가 꼽을 수 있다. 체중 감소는 위절제술 후 심리적인 두려움이나 복부 팽만감 등에 의해 음식 섭취량이 감소하면서 생긴다. 필요한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덤핑증후군은 위 절제술 후 위의 용량이 적어져 식사 후 소화되지 않은 고농도의 음식물이 급격히 장으로 쏟아져 내려가기 때문에 생긴다. 증상은 상복부 팽만, 복부경련, 구토, 설사, 빈맥 등이 있다. 수술 직후 설사, 꿀, 초콜릿 등 단순당질 섭취를 가급적 피해야 하는 반면, 수술 후 부족할 수 있는 철분을 보충하기 위해 계란 노른자, 육류, 해조류 등을 충분히 섭취해 빈혈을 예방해야 한다.

김용호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 위장관 외과 교수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http://www.etoday.co.kr)

